

석사학위논문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통한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김도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향숙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통한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Modern Hair Style Application Through Recreation of
Women's Hair Style in Buddhist Paintings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김도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향숙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통한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Modern Hair Style Application Through Recreation of
Women's Hair Style in Buddhist Paintings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김도연

김도연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통한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김 도 연

불화는 조상숭배의 신앙 또는 영혼숭배의 신앙을 중심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불교회화(佛敎繪畵)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다. 불화가 언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불교조각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성립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타깝게도 초기의 작품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는 없으나, 초기에 불교사원에 불화들이 그려졌던 사실은 고전문헌 등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

불화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 연구는 고전의 전통문화를 습득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에도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불화 중에서도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주로 감로탱 속에 그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감로탱을 중시 여기는 것은 감로탱 중단과 하단에서 그 시대의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고전머리 연구가 감로탱을 중심으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로탱 중 내용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는 임진왜란 직전에 제작된 두 점을 포함해서 20세기까지 약 40여점이 전해지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분량이 제작된 시기는 18세기이다. 감로탱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강우방, 김승희의 『감로탱』 화집이다. 2010년 증보판에는 16세기에 그려진 세이코지

소장 감로탱을 비롯해 총 9기를 더 수록되었으며, 복원된 20세기의 흥천사 감로탱도 신고 있어 한권의 화집으로 토착 불교미술의 질박한 매력과 시대상에 따른 변천을 훑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주 자료로 삼았으며,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논문 또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재현할 머리모양 선정과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불화에 대해서 이론적 측면을 고찰해 보고 문헌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불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분석하여 재현작품을 선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재현 방법을 확정하는 일이다. 재현작품의 주요 선정기준으로는 머리모양을 우선하였으며 총 5기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쌍수계』의 머리 모델로는 고려 말 『관경서분변상도』의 명부층 머리를 모델로 삼았고, 『고계』의 머리 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인 『안락국태자경변상도』를 모델로 선정하였다.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왕비를 그린 작품이지만 내명부 중 비와 빈을 비롯한 궁중의 여인들이 많이 한 머리 형태로 보편적이 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대상으로 삼았다. 『쌍계』의 머리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로 가장 오래되고 쌍계머리 형태가 가장 선명하게 구분되는 약선사 감로탱의 직업인(예인)의 머리를 선정하였으며, 『쪽머리』의 머리 모델로는 조선 후기 직업인(사당패)의 머리를, 『땅은 머리』의 모델로는 조선 말기 미혼녀의 머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화 속 특히, 감로탱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 연구를 토대로 재현할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재현 및 일러스트 작업을 통하여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완성한 재현 작품과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작품,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사진촬영을 통해 전면과 후면, 좌우 측면을 신고 설명과 함께 제시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주요어】 불화, 감로탱, 쌍수계, 고계, 쌍계, 쪽머리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 및 범위	2
제 3 절 연구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불화의 이해	6
1. 불화의 정의	6
2. 감로탕화의 정의	6
제 2 절 불화의 의의와 기원	9
1. 의의	9
2. 기원	10
제 3 절 시대적 배경	13
1. 고려말기	13
2. 조선 초·후기	16
제 3 장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위한 분석 및 선정	19
제 1 절 우리나라의 불화	19
1. 불화의 종류	19
2. 불화 상태 비교	21
제 2 절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선정	27
1. 고려 말기	29
1) 명부층	29

2) 평민	30
3) 시녀	31
4) 예인	33
2. 조선 초기	34
1) 왕비	34
2) 명부층	36
3) 예인	37
4) 시녀	38
3. 조선 후기	39
1) 명부층	39
2) 사당패	40
3) 무당	41
4) 미혼녀, 기혼녀	42
제 3 절 재현대상 머리모양 선정	43
제 4 절 현대 헤어스타일 효용성	45

제 4 장 재현과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46

제 1 절 명부층 (쌍수계)	46
제 2 절 왕비 (고계)	50
제 3 절 예인 (쌍계)	54
제 4 절 사당패 (쪽머리)	58
제 5 절 미혼녀 (땡은 머리)	62

제 5 장 결론 66

제 1 절 결론	66
제 2 절 연구의 한계	67

【 참고문헌 】	69
ABSTARCT	75

【 표 목 차 】

[표 1] 주요 감로탱과 시기별 특징	22
[표 2]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비교 (1)	24
[표 3]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비교 (2)	25
[표 4]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비교 (3)	26
[표 5] 재현 대상으로 선정한 머리모양	44

【 그림 및 사진 목차 】

〈그림 1〉 남장사 감로탱	7
〈그림 2〉 남장사 감로탱 부분도	7
〈그림 3〉 안악 3호분 (묘주부인)	10
〈그림 4〉 안악 3호분 (후궁)	10
〈그림 5〉 안악 3호분 (시녀)	10
〈그림 6〉 안안 3호분 (묘주인이 시중받는 모습)	11
〈그림 7〉 덕흥리 고분	11
〈그림 8〉 관경서분변상도 (1)	30
〈그림 9〉 관경서분변상도 (2)	30
〈그림 10〉 관경서분변상도 (3)	31
〈그림 11〉 관경서분변상도 (4)	31
〈그림 12〉 미륵하생경변상도 (1)	32
〈그림 13〉 미륵하생경변상도 (2)	32
〈그림 14〉 흥국사 벽화	33
〈그림 15〉 칠장사 벽화	33
〈그림 16〉 왕비 (조선전기 불화연구)	35
〈그림 17〉 왕비 (한국의 미 16, 조선불화)	35
〈그림 18〉 왕비 (한국의 미 16, 조선불화)	35
〈그림 19〉 왕비 (한국의 미 16, 조선불화)	35
〈그림 20〉 명부층 (조선전기 불화연구)	36
〈그림 21〉 비천 (조선전기 불화연구)	36
〈그림 22〉 약천사 감로탱 (1)	37
〈그림 23〉 약천사 감로탱 (2)	37
〈그림 24〉 약천사 감로탱 (3)	37
〈그림 25〉 시녀 1 (조선전기불화연구)	38
〈그림 26〉 시녀 2 (조선 불화)	38
〈그림 27〉 남장사 감로탱	39

〈그림 28〉 구룡사 감로탱	39
〈그림 29〉 쌍계사 감로탱	39
〈그림 30〉 경국사 감로탱	40
〈그림 31〉 개인소장 감로탱	40
〈그림 32〉 선암사 감로탱	41
〈그림 33〉 봉은사 감로탱	41
〈그림 34〉 홍천사 감로탱 (1)	42
〈그림 35〉 홍천사 감로탱 (2)	42
〈사진 1〉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재현 전면)	47
〈사진 2〉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재현 후면)	47
〈사진 3〉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재현 측면 : 좌)	47
〈사진 4〉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재현 측면 : 우)	47
〈사진 5〉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48
〈사진 6〉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응용 전면)	49
〈사진 7〉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응용 후면)	49
〈사진 8〉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응용 측면 : 좌)	49
〈사진 9〉 명부층/관경서분변상도 (응용 측면 : 우)	49
〈사진 10〉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재현 전면)	51
〈사진 11〉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재현 후면)	51
〈사진 12〉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재현 측면 : 좌)	51
〈사진 13〉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재현 측면 : 우)	51
〈사진 14〉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52
〈사진 15〉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응용 전면)	53
〈사진 16〉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응용 후면)	53
〈사진 17〉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응용 측면 : 좌)	53
〈사진 18〉 왕비/안락국태자경변상도 (응용 측면 : 우)	53
〈사진 19〉 예인/약천사 감로탱 (재현 전면)	55
〈사진 20〉 예인/약천사 감로탱 (재현 후면)	55
〈사진 21〉 예인/약천사 감로탱 (재현 측면 : 좌)	55

〈사진 22〉 예인/약천사 감로탕 (재현 측면 : 우)	55
〈사진 23〉 예인/약천사 감로탕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56
〈사진 24〉 예인/약천사 감로탕 (응용 전면)	57
〈사진 25〉 예인/약천사 감로탕 (응용 후면)	57
〈사진 26〉 예인/약천사 감로탕 (응용 측면 : 좌)	57
〈사진 27〉 예인/약천사 감로탕 (응용 측면 : 우)	57
〈사진 28〉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재현 전면)	59
〈사진 29〉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재현 후면)	59
〈사진 30〉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재현 측면 : 좌)	59
〈사진 31〉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재현 측면 : 우)	59
〈사진 32〉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60
〈사진 33〉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응용 전면)	61
〈사진 34〉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응용 후면)	61
〈사진 35〉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응용 측면 : 좌)	61
〈사진 36〉 사당패/경국사 감로탕 (응용 측면 : 우)	61
〈사진 37〉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재현 전면)	63
〈사진 38〉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재현 후면)	63
〈사진 38〉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재현 측면 : 좌)	63
〈사진 40〉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재현 측면 : 우)	63
〈사진 41〉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64
〈사진 42〉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응용 전면)	65
〈사진 43〉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응용 후면)	65
〈사진 44〉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응용 측면 : 좌)	65
〈사진 45〉 미혼녀/홍천사 감로탕 (응용 측면 : 우)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불화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 연구는 고전의 전통문화를 습득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 헤어스타일 연구 및 접목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에서 나타난 문헌 속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궁중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머리모양과 관련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불화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화 중 감로탱화는 조상숭배의 신앙 또는 영혼숭배의 신앙을 중심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많은 불화가 사찰을 중심으로 그려졌으나,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매우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효와 결합하여 우란분재(盂蘭盆齋)¹⁾가 널리 성행하게 됨에 따라 많은 탱화를 남겼다. 감로탱화는 지옥이나 아귀도에 빠진 가족·친지들을 위해 우란분재를 올림으로서 지옥의 고통을 여의고 극락에 왕생한다는 전 과정을 그린 불화이다.

본 연구에서 감로탱을 중시 여기는 것은 감로탱 중단과 하단에서 그 시대의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고전머리 연구가 감로탱을 중심으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화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통한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은 거의 미개척 분야라 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하게 된 배경이다.

현대 헤어스타일의 뿌리는 고전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의 유행

1) 우란분재(盂蘭盆齋) : 죽은 사람이 사후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후손들이 음식을 마련하여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것. 흔히 백중이라 부르는 음력 7월 15일에 사찰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불교행사의 하나이다.

을 걷는 현대 헤어스타일도 우리나라 전통의 고전머리에 기초를 두고 선행 연구자들과 미용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전되어 온 것이라 생각한다.

불화 중에서도 감로탱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 것은, 감로탱이 4세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불교이념을 표현한 불화 중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림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독특한 감로탱은 우리 조상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시대상에 따른 변천을 재조명 해 볼 수 있으며, 불화 속에 등장하는 다수 여인들의 여러 가지 머리모양을 접할 수 있어 고전머리 모양 연구에 더없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연구는 물론 머리모양 재현을 통하여 선조들의 미적 감각을 고찰해 보고 나아가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제 2 절 연구내용 및 범위

감로탱 중 내용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는 임진왜란 직전에 제작된 두 점을 포함해서 20세기까지 약 40여점이 전해지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분량이 제작된 시기는 18세기이다.²⁾

감로탱은 종교적인 면에 국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객관성을 따질 수 없지만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이미 토착화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풍속화나 민화보다도 옛 모습을 전해주는 기준이 된다.

국내 최초로 발간된 감로탱 화집은 1995년 천 부 한정판으로 발간된 강우방, 김승희의 『감로탱』 화집이다. 2010년 증보판에는 16세기에 그려진 세이교지 소장 감로탱을 비롯해 코묘지 소장 감로탱(16세기 말), 경북대박물관 감로탱(17세기), 우학문화재단 감로탱(17세기), 영취산 흥국사 감로탱(18세기), 안국안 감로탱(18세기), 성주사 감로탱(18세기), 표충사 감로탱(18세기), 동화

2) 광민경, 「감로탱화 속 조선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용인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2.

사 감로탱(19세기)등 총 9점이 더 수록되었으며, 복원된 20세기의 흥천사 감로탱도 신고 있어 한권의 화집을 통하여 토착 불교미술의 질박한 매력과 시대에 따른 변천을 한권의 화집을 통하여 훑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상하거나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주 자료로 삼았다. 그 외 대표적인 탕화로 1589년(선조22년)에 그린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소장탱화, 1701년에 제작되어 18세기 감로탱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남장사 감로탱화, 1728년(영조4년)에 그린 하동 쌍계사 탕화, 1762년(정조38년)에 그린 영천 은해사 백홍암 탕화, 1790년(정조14년)에 그린 수원용주사 탕화, 그리고 1791년에 그린 관룡사 감로탱(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등을 참고 하였다.

또한 불교적인 소재와 부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나 감로탱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궁중의 내명부나 외명부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중심으로 한 고전머리 연구가 대부분 이었으며,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 자료로 광민경³⁾, 이숙경⁴⁾, 김신하⁵⁾등이 있었고, 불화나 감로탱화를 주제로 한 연구 자료로 최영희⁶⁾, 이경화⁷⁾, 임영수⁸⁾, 권태전⁹⁾, 김수영¹⁰⁾, 그리고 고분벽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재현하거나 연구한 작품으로 이향숙¹¹⁾, 김지윤¹²⁾의 연구 등을 살펴 보았다.

3) 광민경, 전개논문, 2009, p.2.

4) 이숙경, 「여말선초 여성의 고전머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

5) 김신하, 「조선시대 문헌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통한 현대 업스타일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

6) 최영희, 「감로탱화에 표현된 교화적 성격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

7) 이경화,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나타난 풍속장면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

8) 임영수, 「감로탱에 나타나는 풍속화풍의 표현과 그 특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1.

9) 권태전, 「감로탱화에 나타난 풍속화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7, p.1.

10) 김수영, 「감로탱화 하단 옥계부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1.

11) 이향숙, 「고구려 고분벽화내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

12) 김지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주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이다. 따라서 문헌적인 고찰에 의하여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그림의 상태와 관련 문헌을 토대로 최종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재현한 뒤, 재현 작품을 토대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및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현대 헤어스타일로 응용하기 위해서 우선 갖추어야 할 이론적 작업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불화에 대해서 이론적 측면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문헌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불화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불화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화의 기원, 불화와 감로탱화 의의, 시대적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감로탱은 불화의 한 종류로 감로탱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감로탱이 그 시대의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인들의 다양한 머리모양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로탱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강우방, 김승희의 『감로탱』 화집이다. 2010년 증보판에는 16세기에 그려진 세이교지 소장 감로탱을 비롯해 총 9기를 더 수록되었으며, 복원된 20세기의 흥천사 감로탱도 실고 있어 한편의 화집으로 토착 불교미술의 질박한 매력과 시대상에 따른 변천을 훑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주 자료로 삼았다. 감로탱에 대한 실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강우방, 김승희의 감로탱 화집에 수록된 경북 상주의 남장사 감로탱(1801)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감로탱에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수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연구하기 위하여 남장사 감로탱 부분도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곽민경의 「감로탱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는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고전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재현하고 나아가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는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분석하여 재현작품을 선정하는 일이

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

다. 재현작품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현작품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시대별로 고려 말기, 조선 초기,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구분하여 관련 문헌 및 불화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고려 말기는 명부층 2기(관경서분변상도), 중류층 2기(평민), 하류층 4기(시녀 2기, 예인 2기) 등 8기를, 조선 초기는 상류층 4기(왕비,후비), 명부층 2기, 직업인 3기(예인), 시녀 2기 등 11기를, 조선 후기는 명부층 3기(감로탱에 등장하는 명부층), 직업인 4기(사당패 2기, 무당 2기) 미혼녀 및 기혼녀 2기 등 9기를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총 28기를 선정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5기를 선정(고려 말 1기, 조선 초기 2기, 조선 후기·말기 2기)하였다.

주요 선정기준으로는 머리모양을 우선하였다. 『쌍수계』의 모델로는 고려 말 『관경서분변상도』의 명부층 머리를 모델로 삼았고, 『고계』의 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인 『안락국태자경변상도』를 모델로 선정하였다. 『안락국태자경변상도』는 왕비를 그린 작품이지만 내명부 중 비와 빈을 비롯한 궁중의 여인들이 많이 한 머리 형태로 보편적이 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대상으로 삼았다.

『쌍계』의 머리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로 가장 오래되고 쌍계머리 형태가 가장 선명하게 구분되는 약선사 감로탱의 직업인(예인)의 머리를 선정하였으며, 『쪽머리』의 모델로는 조선 후기 직업인(사당패)의 머리를, 『땅은 머리』 모델로는 조선 말기 미혼녀의 머리를 선정하였다.

셋째는 작품 재현 방법이다. 최종 선정된 5기에 대해서 불화 속의 머리모양을 재현하고, 재현 작품을 토대로 일러스트 작업 및 현대 헤어스타일로 응용하였다. 감로탱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는 가채 사용으로 무게나 길이 때문에 모델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 따라서 마네킹을 이용한 머리모양 작업을 선택하였다.

완성한 재현 작품과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작품,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사진촬영을 통해 전면과 후면, 좌·우 측면을 싣고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불화의 이해

1. 불화의 정의

불화란 불교의 종교적인 이념을 표현한 그림. ‘불교회화(佛敎繪畵)’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존상화(尊像畵), 즉 절의 법당 같은 곳에 모셔 놓고 예배하기 위한 그림을 일컬으며, 넓은 의미로는 불교도나 이교도를 교화하기 위한 가지 가지 그림이나 절을 장엄하게 하기 위한 단청(丹青) 등 불교적인 목적을 지닌 일체의 그림을 일컫는다.¹³⁾

2. 감로탱화의 정의

감로탱화는 조상 숭배의 신앙 혹은 영혼 숭배의 신앙을 중심으로 묘사한 불화이다. 영단탱화(靈壇幀畵)·하단탱화(下壇幀畵)라고도 하며, 사찰의 명부전이나 법당의 불단 좌우에 있는 영단에 많이 봉안한다. 영가(靈駕)의 극락왕생을 위한 신앙생활을 도설화한 것이라 하여 영단탱화라 하고, 아귀나 지옥의 중생에게 감로미(甘露味)를 베푼다는 뜻에서 감로탱화라 한다

감로왕탱화는 불교의 여섯 세계중 아귀의 세계를 묘사한 불화로서 우란분탱화(盂蘭盆幀畵)라고도 한다.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죽은 어머니의 영혼을 아귀의 세계로부터 구하는 것을 주제로 한 <우란분경>에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유교의 효와 결합하여 우란분회가 널리 성행하게 됨에 따라 많은 탱화를 남겼다. 즉, 감로왕탱화는 지옥이나 아귀도에 빠진 가족·친지들을 위해, 우란분재를 올림으로서 지옥의 고통을 여의고 극락에 왕생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p.600..

한다는 전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감로왕은 극락세계의 주불(主佛)인 아미타불이다. 보통 이 탕화의 제일 윗부분에는 극락의 아미타불 일행이 지옥 중생을 맞이하러 오는 장면을 그리고 중간부분에는 지옥중생들을 인도하여 극락으로 맞아 가는 보살 그림과 재(齋)를 올리는 모습, 아랫부분에는 아귀나 지옥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고통을 묘사하게 된다.¹⁴⁾



〈 그림 1 〉
남장사 감로탱, 1701



〈 그림 2 〉
남장사 감로탱 부분도
(육계와 현실)

〈그림1〉은 경주 상주에 소재하고 있는 남장사 감로탱(1701)¹⁵⁾이다. 감로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림이다. 감로탱은 상단, 중단, 하단의 3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인간 천도와 구제에 있다.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하단, 중단, 상단으로 이어진다.

하단에는 감로의 혜택을 받아야하는 아귀를 중심으로 육도윤회(六道輪廻)¹⁶⁾에서 고통받는 다양한 인물들이 표현되어 있다. 아귀는 머리와 배가 태산만큼 큰데 목구멍은 바늘처럼 가늘어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귀의 주변에는 지옥의 모습, 사람들의 생활상이 묘사되며 죽음과 관련된 도상들이다.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게서, 1996, p.307.

15) 강우방, 김승희, 『감로탱』, 1995, p.54.

16) 불교에서 중생이 생전에 한 행위에 따라서 저마다 가서 살게 된다는 일명 육계(六界-지옥도·아귀도·축생도·아수라도·인간도·천상도)를 이르는 말이다.

중단에서는 하단의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감로탕 중앙에 풍성한 음식들을 마련하고 주변에는 재(齎)의식을 집행하는 의식승과, 역대 재왕과 후비, 성현, 문부백관이 묘사되는데 시대가 내려올수록 의식에 참여하는 인물수가 많아진다.

〈그림2〉 남장사 감로탕 부분도¹⁷⁾를 보면 화려한 옷차림에 장구를 들고 있는 여인과 주변에 다수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직업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연희패들을 표현한 내용으로 재(齎) 의식에서 연희를 베푸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희패들의 모습에서 당시의 실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시대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라 사료된다.

상단에서는 중단의 정성들인 의식에 감응해 하단에 표현된 아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영하는 칠 여래(七如來 : 상단중앙)¹⁸⁾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 상단 칠여래 우측)¹⁹⁾, 지장보살(地藏菩薩 : 상단 칠여래 우측)²⁰⁾,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 : 상단 칠여래 왼쪽)²¹⁾이 묘사되어 있다.

이 불화는 강희(康熙) 40년에 그려진 것으로 현재 강희 연간(1662~1722)의 작품으로는 몇 되지 않는 예가 된다. 이보다 앞선 17세기의 것으로는 서너 점 정도의 예비에 남아 있지 않아 남장사 감로탕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²²⁾

감로탕에는 고향을 위로하는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 감로탕 중절반이 18세기 작품이다. 남장사 감로탕(1701)은 18세기 감로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옥장면을 맨 처음 담은 감로탕으로 알려지고 있다.

17) 강우방, 김승희, 전게서, 1995, p.58.

18) 일곱 여래를 가리키며, 감로탕에서는 비파시불(毘婆尸佛), 시기불(尸棄佛), 비사부불(毘舍浮佛), 구류손불(拘留孫佛),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가섭불(迦葉佛),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가리킨다.

19)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는 보살.

20) 인도에서 4세기경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중국·한국·일본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매우 널리 숭배되어온 보살.

21) 죽은 사람의 넋을 맞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보살.

22) 강우방, 김승희, 전게서, 1995, p.54.

제 2 절 불화의 의의와 기원

불화는 넓은 의미로는 불교와 관련된 모든 그림을 일컫는다.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여러 존상들, 예를 들어 부처님·보살·신중을 나타낸 그림, 그리고 고승대덕을 기리기 위해 그린 그림 곧 진영(眞影)은 물론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부처님의 일대기, 법회의 모습을 그린 그림, 경전에 그려진 그림, 전각(殿閣)의 벽에 그려진 벽화 등을 일컫는다. 그리고 여러 전각을 오색(五色)을 기조로 갖가지 문양을 베풀어 장엄하는 이른바 단청(丹青)도 불화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좁은 의미로는 불화(佛畵)라는 말뜻 그대로 직접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佛陀]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화라고 하면 불교 그림을 총칭한다.²³⁾

1. 불화의 의의

불화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크게 종교성과 예술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불화가 일반 그림과 다른 이유는 바로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불교의 이념이나 사상을 알기 쉽고 아름답게 그려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화를 통해 감명을 받아 불교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종교적인 실천을 유발하는 것이 불화의 진정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화는 한 화폭에 다양한 존상을 담을 수 있고, 교리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서 불상보다 훨씬 설명적이다. 그러므로 불교를 이해하거나 교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²⁴⁾

한 마디로 불화는 불교의 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매우 난해한 교리를 그림을 통하여 알기 쉽게 전해주는 신앙생활을 도와 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23) 네이버, <http://www.nungin.net>, 검색일 : 2013.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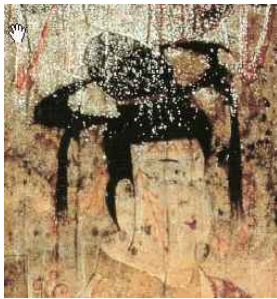
24) 네이버, <http://www.nungin.net>, 검색일 : 2013. 3. 27.

2. 불화의 기원

불화가 언제부터 그려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살이 계시던 불교 성립 초기부터 법당을 장엄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那耶雜事)》 제17권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문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불화를 그린 사실이 나오며, 이 내용으로 보아 불화는 기원정사에서부터 그렸고, 건물의 각 용도에 따라 그림의 내용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화로 장엄한 당시의 사원 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불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인도 아잔타(Ajanta)석굴의 벽화이다.²⁵⁾

우리나라의 경우는 6~7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불교적인 소재와 부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불화의 제작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그림 3 〉
안악 3호분 : 묘주부인



〈 그림 4 〉
안악 3호분 : 후궁



〈 그림 5 〉
안악 3호분 : 시녀

안악 3호분의 여주인공의 머리모양은 가체를 두른 것으로 당(唐)의 금은비녀와 보요장식을 한 보계(寶髻)로 보기도 하며 힐 자계(纈子髻) 또는 환상계(環狀髻)로 보기도 하며, 환계(環髻)로 보기도 한다. 서쪽 곁 칸 남벽에 위치하고 있는 여자묘주의 초상화에는 높이 쌓아 올린 머리를 빨간색 띠로 묶고 조선시대 거두미처럼 타원형의 가체를 쌓아 올린 머리에 고정시켜 놓았다.

25) 네이버, <http://www.nungin.net>, 검색일 : 2013. 3. 27.

가체 밑으로는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늘이고 있으며 나뭇가지 모양 또한 얼굴 구레나룻 양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양을 볼 수 있다. 귀 앞 구레나룻 위치에 한 가닥의 머리카락은 장식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그림3>

여자주인공의 옆에는 후궁으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있으며 쌓아 올린 머리를 빨간색 띠로 묶고 머리모양 또한 가체를 사용하였으며 빨간색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올린머리 위에 고정 시켰다.<그림4>

여자 묘주와의 차이점은 힐자계로 보이는 가체의 크기가 여자 묘주보다 작으며 양 옆으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과 나뭇가지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여자주인공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시녀의 모습을 보면 시녀의 머리모양은 2~3개의 고리로 올려 고계운환(高髻雲環)²⁶⁾ 이라는 기록이 있다.<그림5> 주로 이런 머리 모양은 시녀들의 머리모양에서 볼 수 있다.²⁷⁾

위와 같이 벽화 속의 인물들은 흔히 신분과 계급에 따라 크기나 옷의 무늬, 색깔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 중에서 안악 3호분<그림6>과 덕흥리 벽화고분<그림7>이 유명한데, 안악 3호분은 고국원왕릉으로 왕의 권위가 그림에 잘 나타나 있고 덕흥리 고분은 광개토대왕의 대신 이었던 “진”의 무덤으로 그의 위엄이 잘 나타나 있다. 고구려 초기의 고분벽화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풍속화 중심이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잘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 그림 6 > 안악 3호분
묘 주인이 시녀들에게
시중을 받고 있는 모습



< 그림 7 > 덕흥리 고분
여주인공 행차 모습

26) 머리를 땅아 쌓고리로 틀어 올린 형태의 머리모양.

27) 김지윤, 전계논문, 2008, p.12.

백제의 불화는 실물과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옛 모습을 알 수 없으나 공주 송산리, 부여 능산리 등의 조각, 그림을 통하여 보면 고구려에 필적할 만한 불교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기법은 고구려와 달리 유연하고 아담하다.

신라는 금관총이나 금령총에서 출토된 칠기의 연꽃 무늬, 불꽃 무늬, 서조도, 기마인물도, 천마도 등 유물을 통해 볼 때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고 웅건하면서도 유연한 기품을 간작하였다. 채색이나 구도는 고구려의 영향을, 선의 처리는 백제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²⁸⁾

본 연구를 위해서 삼국시대 불화를 고찰하여 보았으나 현존하는 작품은 한 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작품을 통하여 삼국시대 불화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차선택으로 삼국유사 등 고서를 통하여 추론해 보거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분벽화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8) 네이버, <http://dugok.x-y.net>, 검색일 : 2013. 5. 10.

제 3 절 시대적 배경

1. 고려 말기

고려 제23대 고종 46년인 1259년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 징기스칸의 후예인 몽골족은 중국을 양분하고 있던 송과 금을 압박하면서 6번에 걸쳐 고려에까지 침입해오더니 30년 만에 굴복시키고 만 것이다. 이로써 제 31대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약 80년간 몽골족이 세운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자주성을 잃고 말았다.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도 국토의 축소는 물론 제도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혁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중에서도 왕실의 혼인은 몽골과 고려를 혈연으로 결속시킨 중대한 사건이었다.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이었다. 충렬왕이후 공민왕 때까지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여 명실상부한 부마국이 된 것이다.

나라가 자주성을 잃었을 때 지배층의 일부에서는 서둘러 원의 옷을 입고자 하고, 머리도 원의 풍습대로 개체변발(開剃辮髮)²⁹⁾을 하자는 층이 있었다. 실제로 충렬왕은 왕자 시절 원에 갔다 올 때 개체변발을 하고 와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등극한지 4년째 되던 해에 명을 내려 재상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원의 옷과 머리를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임금의 명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몽골식을 따르지는 않았다.³⁰⁾

공민왕이 등극한지 17년이 되던 해, 중국 대륙에서는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몰아 닥쳤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것이다. 조선개국 일 년 전인 1931년의 일이었다. 홍건적의 난이 직접적인 원인 이었다. 홍건적을 이끌었던 주원장은 남경에 도읍을 정하고 북벌을 개시해 원을 몰아 낸 다음 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공민왕은 원을 멀리하고 명으로부터 관복을 받아 왔다. 선린정책(善隣政策)³¹⁾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공주가 난산으로 죽은 이후에 정국을 바르게

29) 중국 북방민족의 남자들이 앞 부분만 깎고 뒷부분은 땅아 늘인 머리모양, 치발(辮髮).

30) 김동욱,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아세아 문화사, 1973, p.224.

31) 이웃나라와 친선(親善)을 도모(圖謀)하려는 정책.

이끌지 못하고 암살당하여 우왕에게 왕위를 물려 주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신흥국인 명과 친근하게 지내야 한다는 친명파와 기존의 원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친원파가 대두하게 되었다.

친원파는 최영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 이었고, 친명파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세력 이었다. 두 세력은 명의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철령위를 설치하면서 충돌하였다. 친원파는 원을 도와야 한다면서 출병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군을 통솔하고 있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고려의 왕권을 박탈하였다. 이후 등극한 창왕, 공양왕은 이성계 일파의 계략에 의한 왕이었을 뿐이고 결국 1392년 고려는 멸망하고 말았다.

원나라에 소개된 고려의 문화는 고려인들의 특출한 창의력이 돋보이는 인쇄술, 도자기, 화약, 불교장식, 회화 등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 그중 불교회화는 고려 말에 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수한 경지를 보여 주었다.

고려 말 미술은 대표적인 문화의 산물로 불화는 그 중심에 있었다. 도자기, 불탑 등 조형예술에서 회화예술로 예술성이 옮겨가게 되는 것은 중세 미술의 한 특징이다.

고려 말 불화는 바로 이들의 불교 신앙에 의해 그려져 유명한 절에 공양된 것 이었다. 더구나 처음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기원하기 위해 바쳐졌지만 고려 말에는 자신의 영달과 극락왕생을 위한 기원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더 폭넓고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한 공양물로 바쳐졌다.

그럼에도 단순한 불화로 그치지 않고, 궁중의 왕권다툼이나 골육상쟁을 암시한 작품도 있어 시대상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고려 말의 문화사적 배경에는 이처럼 불교 중심의 예술이 불화로 마무리되어 남게 되었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³²⁾

고종 18년(1231) 몽고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 채 원과의 치욕적인 화친이 성립 된 후에는 그들의 동화정책(同化政策)³³⁾에 따라 원의 두발장식 풍속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

32) 이숙경, 전개논문, 2010, p.8.

33) 본국 또는 지배민족이 식민지의 원주민이나 또는 국내의 소수민족을 자기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

그리하여 충렬왕 12월에는 몽고특유의 두발형태인 개체변발(開剃辮髮)을 따르자는 논의가 있었고 같은 왕 4년 2월에는 정식으로 개체변발 할 것을 명하였다. 그 이후 개체변발은 일반 서민들이나 출세를 희구하는 관료들 사이에서 크게 풍속을 이루다가 원의 힘이 약해진 31대 공민왕에 이르러서야 사라졌다.³⁴⁾

일반적으로 미혼여성은 홍라(紅羅)로 머리를 묶고 그 여발(餘髮)은 뒤에 내렸으며, 기혼여성은 귀천 없이 머리를 틀어서 강라(降羅)³⁵⁾로 묶고 여기에 작은 비녀를 꽂았으며 여발은 뒤에 내려뜨렸다. 기녀의 머리모양을 묘사한 기혼녀의 머리 형태로 잠우고, 녹환, 진발, 운고와 같이 가체를 이용하여 머리를 구름처럼 만든 것이다. 비교적 간단한 수식(首飾)으로 장식한 것과 여러 가지 보옥(寶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얹은머리가 있다. 고려는 물론 조선까지 성행한 기혼부인의 머리모양이다. 수월관음도에서 머리 뒷통수 쪽은 크게 올려서 붉은 끈으로 땀으며 흰색 진주 같은 것을 머리 전체에 장식하였다. 쌍아계는 문헌에 계아, 관, 쌍각지아록고 등으로 묘사된 쌍상투는 여아의 머리모양으로 머리를 반으로 갈라 위에서 묶어 준 형태이다. 쌍수계는 쌍상투와 같이 미혼여자의 머리모양으로, 머리양쪽 귓가에 모발을 묶어서 내리는 형태이다. 타마계는 기혼녀의 머리 형태로 변발을 하여 머리를 올린 후 나머지는 조금 내린 형태로, 옛 신라의 “변발요두”³⁶⁾와 비슷한 모양이다.³⁷⁾

고려(918~1392)는 불교를 국교로 숭상하였기 때문에 일반백성들에게 불교가 대중화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폭 넓게 퍼진 정토신앙은 극락정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극락세계의 믿음을 심어 주었다.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고려불화는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로 고려후기에 그려진 것들로 파악되고 있다.

34) 박선예, 「고려와 조선의 분장과 두발장식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5, p.33.

35) 장수가 입던 붉은 비단으로 지은 옷.

36) 삼국시대 머리 모양에 대한 문헌기록은 백제에 있어서는 「북사(北史)」에 ‘출가한 여인은 반어두상(盤於頭上)’이라 하였으며 또 신라에 있어서는 역시 「북사(北史)」에 ‘변발요두(髮繞頭)’라 하였는데 이것은 둘 다 머리를 얹는 형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37) 이숙경, 전개논문, 2010, pp.10-11.

2. 조선 초 · 후기

조선의 개국은 고려의 제도를 따르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것으로 고려도 개국 초에는 신라의 제도를 채용했고, 명 역시 같은 한족국가였던 당, 송의 제도를 따랐다. 일국의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공민왕에 의해 사여관복이 이루어진 명과의 관계는 조선에 와서 더욱 돈독한 정치적 관계로 발전했다. 즉 친명파에 의해 조선이 개국한 만큼 명에 대한 조선의 시대는 당연히 되었다. 이 때의 시대란 사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외교정책에서 나온 보전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친명파가 고려 말부터 주장해온 보국지도(保國之道)인 것이다.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중국과 책봉관계를 맺고 있어야 국가 안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책봉관계는 사여관복과 조공으로 대변이 되며 신생국 조선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도 명과 사대외교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다.³⁸⁾

조선사회는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채용해 따르면서도 나름의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신분제도와 승유역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분제도는 훗날의 사농공상(士農工商)³⁹⁾으로 구분했던 것에 비추어 초기에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⁴⁰⁾ 노비와 그렇지 않은 양반층으로 크게 구분된 양천제(良賤制)⁴¹⁾가 그것이다. 선초에는 중인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승유역불⁴²⁾은 이미 고려 말에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⁴³⁾ 성리학(性理學)⁴⁴⁾으로 지칭되었던 유학이 수용되면서 정치권 주변에 부패해 있던 불교

38) 이숙경, 전개논문, 2010, p.12.

39) 백성을 네가지 계급으로 분류, 선비, 농민, 농부, 공장(工匠), 상인을 이르는 말.

40) 유승원, 『조선초 신분제 연구』, 서울 : 을류문화사, 1987, pp.62-63.

41) 모든 백성이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으로 구분한 국가적 신분제도 중국에서는 황제권이 확립되는 진(秦)·한(漢)시대부터 제도화하기 시작하여, 당나라 때 이르러 제도적인 틀이 완성 되었다.

42) 조선왕조 500년 내내 불교를 탄압한 정책이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정도전이 불씨잡변(佛氏雜變)을 저술하여 역불론은 주장했다 조선건국 세력이 태조에게 추정하여 대대적인 불교 탄압을 하였다.

43) 연세대학교 국악연구원,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 2005, p.37.

44) 중국송나라, 명나라 때 주돈이(周敦頤), 정호, 정이 등에서 비롯하고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학파.

를 비판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배척의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목은의 제자인 포은 정몽주가 불교의 병폐를 가리켜 “친척을 멀리하고, 남녀 사이를 끊으며 암혈에 홀로 앉아 초의목식(草衣木食)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정적을 숭상하니 이것이 어찌 인륜의 도리인가?”라고 한 말은 유교와 불교의 마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⁴⁵⁾

조선시대 초기에는 그 이전의 고려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전수되었다. 실질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자체가 문화의 큰 변동이 일어나 새로운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것 이였기 때문이다. 현재 연구되는 한국 복식사 중에서 조선시대 머리모양은 고려시대 복식에 비하여 비교적 양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머리모양을 나타내는 자료는 적다. 조선 중·후기에 들어 풍속화나 조선 말기의 사진이 전해지면서 당시의 머리모양에 대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머리모양에 대한 명칭이나 그 모양의 기록이 특별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역시 그 자료가 희귀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내의 자료와 중국 대륙의 자료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⁶⁾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 불화의 시대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찬란했던 고려말기의 불화에 비해 조선 초기 불화는 『송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히 쇠퇴하였고 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고려왕실의 지나친 숭불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던 고려말기 유학자들이 대부분 척불세력(斥佛勢力)으로 조선왕조 개국공신으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왕조 출범과 더불어 억불의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까지 뿌리 깊었던 불교신앙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 이면에서 민간신앙으로서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군주나 왕후·빈을 중심으로 불교를 옹호⁴⁷⁾하기도 하여 대체적으로는 백성들의 취향에 맞는 대중적인 불교문화가 발달했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45)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서울 : 일조각, 1993, p.9.

46) 이숙경, 전개논문, 2010, p.17.

47) 세종과 세조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불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명종 때 문정왕후는 승려 보우를 앞세워 불교의 중흥을 꾀하기도 하였다.

16세기 말의 임진왜란과 17세기 중반의 병자호란 등 40여 년간에 걸친 외국과의 전쟁은 전국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였다. 그중에서도 전국 사찰은 승병(僧兵)의 본거지였던 까닭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많은 사원들은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 불타버렸으며, 수많은 불교문화재들이 약탈, 방화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승병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인하여 조선전기의 강력한 억불정책은 다소 완화되었고 전란중 소실된 사찰들은 숙종 대 이후 대부분 중건 또는 중창되었다. 사찰의 활발한 조영에 따라 불교미술도 일대 조성 붐이 일어나 각 분야에 걸쳐 대규모의 불사(佛事)가 행해졌는데, 전각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그 안에 봉안되는 불교회화 역시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조선 후기의 사찰의 전각배치와 전각 안의 불화배치를 보면 전각 안에는 적게는 몇 점에서부터 수십 점에 이르는 불화들이 봉안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불전에는 상단탱화(上壇幀畵)에서 하단탱화(下壇幀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불화들이 한 곳에 봉안되어 중심전각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주불전(主佛殿)중에서도 대규모의 전각에는 삼신불화(三身佛畵: 毘盧遮那佛畵, 釋迦佛畵, 盧舍那佛畵)나지 삼세불화(三世佛畵: 釋迦佛畵, 阿彌陀佛畵, 藥師佛畵)를 봉안하는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까지 후불화(後佛畵: 불상의 뒤에 봉안하는 불화의 주류를 이루던 벽화의 제작은 사라지고 점차 간편한 탕화를 후불벽에 걸어 예배하는 경향으로 변하였다.⁴⁸⁾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조선후기에도 왕실발원 불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왕조 말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왕실의 상궁·비빈들이 주축이 되어 주로 불사(佛事)차원에서 시주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이 시기가 불교의 대중화라 불릴 만큼 많은 불화들이 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사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조성되었을 정도였다.

48) 다음, <http://blog.daum.net>, 검색일 : 2013.5.11.

제 3 장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위한 분석 및 선정

제 1 절 우리나라의 불화

1. 불화의 종류

불화는 그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불화는 주된 내용이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른 분류, 만들어진 재료에 따른 분류, 쓰이는 용도에 따른 분류 등이 그것이다.

첫째, 주된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존상도, 화상도, 변상도, 심우도로 나눌 수 있다.

존상도는 부처님을 비롯한 보살, 신중, 고승 등 여러 존상 등을 형상화 한 것을 말한다. 존상도는 존상 한분만을 단독으로 그리는 경우와 여러 존상을 함께 그리는 경우가 있다. 존상을 단독으로 그리는 경우를 독존도라고 하며 두 사람을 나란히 그리는 경우를 병존도, 세 사람 이상일 경우 사람의 숫자에 따라 세 사람이면 삼존도, 다섯 사람이면 오존도라고 한다.

화상도는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모임인 법회의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회상이라고 한다. 영산회상이란 석가여래가 영취산에서 베푼 법회를 상징하며 약사회상이란 약사유리광세계에서 약사여래가 베푼 법회를 상징한다.

변상도는 불교경전의 복잡한 내용이나 가르침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기 위한 그림이다. 따라서 모든 불화의 형태를 변상도라고 볼 수 있다. 그 종류는 화엄경변상도, 관경변상도, 지옥변상도 등 다양하다.

심우도는 선종에서 수행의 과정을 소와 동자를 등장시켜 마치 소를 길들이는 일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10장면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장면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점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우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둘째, 재료에 의한 분류이다. 불화를 그리는 재료는 베(布)·흙·나무·종이·금속·돌 등 다양하다. 가령 흙이나 돌·나무 등은 대개 벽면이나 천정, 지붕을 구성하게 되므로 천정화나 벽화 등이 그려지게 된다. 그리고 종이나 베 같은 재료는 탕화나 경화 등을 그리게 된다. 벽화는 흙벽 그림, 돌벽 그림, 판벽 그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흙 벽화는 건물의 멸실이나 보수 등으로 없어지기 쉬워 보존이 어렵다. 돌 벽 그림은 석굴 사원이나 목조건물의 벽에 새길 경우 등 특수한 예에 속한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석굴사원이 조성되어 많이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예가 없다.

판벽 그림은 누각이나 건물의 바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붙이고 불화를 그린 것이다. 사원의 나무기둥이나 문 등에 그린 그림이 이 범주에 속한다. 천정화는 목조건물의 천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채색 같은 것을 덧입히는 것이다.

탕화는 벽면 같은 곳에 거는 그림으로 흔히 족자형 또는 액자형의 불화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특히 애용되는 형식의 그림으로 현재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경화는 불경에 그린 그림으로 흔히 변상도라고 한다. 불경에 직접 그린 것과 나무나 금속판으로 인쇄한 판화 형태가 있다.

셋째로는 용도에 의한 분류이다. 불화의 용도는 사원을 장식하는 장엄용, 일반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한 교화용, 법회 등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예배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장엄용으로 분류하는 후불탱화나 후불벽화 등은 예배용 불화의 성격도 갖고 있다.

장엄용 불화의 대표적인 것은 천정이나 기둥, 벽면에 그린 단청과 벽화를 들 수 있다. 단청은 도안적인 무늬 그림이 대부분이다.

교화용 불화는 사원의 벽화로 불전도 같은 설화적인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팔상도(八相圖)나 지옥변(地獄變), 영산화회상도, 본전불의 후불탱이나 후불벽화도 교화용 불화에 속한다.

예배용 불화는 야외에서 법회를 거행할 때 주로 사용한다. 야외에서 사용하는 불화를 괘불 또는 괘불화라고 한다.

2. 불화 상태 비교

고려시대의 불화는 변상도가 주류를 이룬다. 고려시대 불화로 많이 등장하는 『관경서분변상도』는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14세기 작품으로 130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초기(1392년 ~ 15세기 말)에는 관경16변상도 등 고려시대의 불화가 이어져 오다가, 중기(15세기 말 ~ 17세기 중반)부터는 감로탱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후기(17세기 중반 ~ 18세기 말)에는 남장사 감로탱 등 수십 점이 제작되어 감로탱의 제작의 활황기였으며, 말기(18세기 말 ~ 20세기 초)에도 10여점이 제작되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감로탱은 50여점이고 그중 내용 파악이 가능한 40여점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구도로 되어 있다. 상단은 불보살계, 중단은 의식장면, 하단은 욕으로 인하 업의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욕계로 구성되어 있다. 단 그림이 똑 같지 않을 뿐이다. 40여점 중 같은 그림은 하나도 없다. 인물이 되었건 산수가 되었건 보살이 되었건 똑 간이 그려진 작품은 한 점도 발견할 수 없다. 적어도 4백년 이상에 걸쳐서 제작되었는데 그렇다. 뿐만 아니라 감로탱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다. 조선만이 독특한 불화이다. 말하자면 조선에서 탄생한 가장 조선적인 불화이다.⁴⁹⁾

상단, 중단, 하단에는 각기 상황에 어울리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하단의 군상에는 신분과 상벌과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확연하게 머리모양이 보이는 감로탱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려는 것이다. 인용 될 감로탱은 16세기 작품이 2점, 17세기 작품이 2점, 18세기 작품이 21점, 19세기 작품이 11점, 20세기 작품이 8점, 도합 44점이다. 이를 내용면이나 변천상을 기준으로 보면 시기별로 세 단계로 구분이 되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말까지를 제1기, 18세기 초에서 18세기 말까지를 제2기,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까지를 제3기로 구분지은 것이 그 것이다.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에 있으며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는지 도표로서 살펴보기로 하겠다.⁵⁰⁾

49) 강우방, 『감로탱의 양식변천과 도상 해석』, 서울 : 예경, 1995, p.352.

50) 박민경, 전제논문, 2009, p.20.

〈 표 1 〉 주요 감로탱과 시기별 특징

시 기	작품 (연대, 왕조)	주요 내용과 특징
제 1기	약선사 감로탱(1589, 선조22) 조전사 감로탱(1591, 선조24) 보석사 감로탱(1649, 인조27) 청룡사 감로탱 (1682, 숙종8)	감로탱이 유행하기 전단계로 상중하단을 한사람이 그리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명칭도 청룡사 소장품에서부터 처음으로 감로왕도로 되어 있다. 천도재 장면에는 왕과 후비, 궁녀들, 상류층 여인들이 보인다. 하단에는 대체로 20여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장례행렬, 예인들, 무녀, 주악장면, 천녀 등에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며 옷은 모두 중국식이다.
제 2기	남장사 감로탱(1701, 숙종27) 해인사 감로탱(1723, 경종3) 직지사 감로탱(1724, 경종4) 구룡사 감로탱(1727, 영조3) 쌍계사 감로탱(1728, 영조4) 운흥사 감로탱(1730, 영조6) 선암사 감로탱(1736, 영조12) 원광대 감로탱1(1750, 영조26) 국청사 감로탱(1755, 영조31) 지수박물관 감로탱 봉서암 감로탱(1759, 영조35) 원광대 감로탱2(1764, 영조40) 신흥사 감로탱(1765, 영조41) 통도사 감로탱(1786, 정조10) 용주사 감로탱(1790, 정조14) 고려대 감로탱 관룡사 감로탱(1791, 정조15) 은혜사 감로탱(1792, 정조16) 호암미술관 감로탱 홍익대 감로탱	감로탱의 전형이 확정되는 시기로 작가계열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중앙화단에서는 김홍도 등 풍속화계열 작가들이 등장할 때지만 감로탱에는 아직 풍속화 풍이 완전한데 드러나 있지는 않다. 만화풍의 장면도 도처에 보인다. 복식은 관룡사 감로탱에서 부터 한복이 등장한다. 왕과, 후비들,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층이 두루 나타난다. 60여 장면 중에 지옥에서의 갖가지 모습도 다수 보인다. 용주사 감로탱에서 처음으로 남사당이 나타나며 구경꾼 장면에 치마, 저고리, 갓, 두루마기가 처음 보인다.

제 3기	백천사 감로탱(1801, 순조1) 수국사 감로탱(1832, 순조32) 흥국사 감로탱(1868, 고종5) 경국사 감로탱(1887, 고종24) 개인소장 감로탱 불암사 감로탱(1890, 고종27) 봉은사 감로탱(1892, 고종29) 지장사 감로탱(1893, 고종30) 보광사 감로탱(1898) 청룡사 감로탱(1898) 백련사 감로탱(1899) 통도사 감로탱(1900) 신록사 감로탱(1900) 대흥사 감로탱(1901) 원통암 감로탱(1907) 청련사 감로탱(1916) 사명암 감로탱(1920) 홍천사 감로탱(1939) 온양민속박물관 감로탱	2기 후반기에 드러나기 시작한 풍속화풍의 장면이 정착되어 있다. 더구나 이는 지옥장면이 사라지고 대신 채워진 것이어서 작가의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어 시대상을 보여준다. 풍속장면으로는 대장간, 노상주점, 엿장수, 포목장수, 시장, 굿 등 다양하며 연희패 역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기 후반기로 가면서 그림의 양상은 점차 도식화되어 가고 내용면에서 질이 떨어진다. 일제 강점기에는 서구 문물의 영향이 뚜렷한 세태 반영 장면으로 나타난다.
------	--	--

그림의 크기는 대체로 가로가 2m 내외로 세로보다 약간 길며 3m가 넘는 것도 있다. 화폭은 17세기까지 작품 4점은 마본이고, 온양민속박물관 소장품은 병풍으로 되어 있는 지본이며 나머지는 모두 견본이다.

초기 작품들이 모두 삼베에 그려졌다는 것은 서민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실증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⁵¹⁾ 그림 공양에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단으로 못하고 삼베에 그려서라도 중건된 절을 꾸미겠다는 불심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에 대한 명칭도 이 때부터 정해지기 시작했다. 청룡사 소장품에서 처음 감로왕도라는 명칭이 붙더니 18세기 작품부터 비로소 감로탱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⁵²⁾

51)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서울 : 시공사, 2008, p.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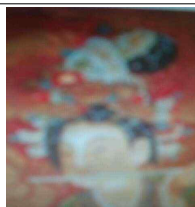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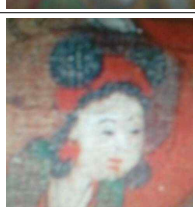
52) 김승희, 전계서, 1995, p.401.

고려말기이후 조선시대는 많은 불화가 제작되었는데,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머리모양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에 참고대상으로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표2>에서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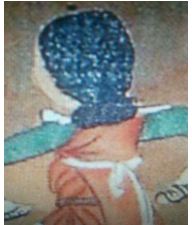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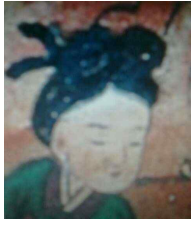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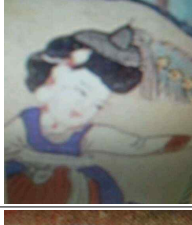
<표2>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비교 (1)

작 품 구 분	시 기	소재지	머리모양	신분, 특징
관경서분변상도 한국의 미, 1996 중앙일보사	 고려 말기 (1323)	일본 지은원	쌍수계	명부층(상류층) 고려말 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기혼녀 머리
관경서분변상도 한국의 미, 1985 중앙일보사	 고려 말기		거두미 관형	왕비(상류층)
관경서분변상도 고려시대 불화 1996, 시공사	 고려 말기		채머리	평민(중류층) 자연스럽게 내린 생머리 형
미륵하생경 변상도 한국의 미, 1996 중앙일보사	 고려 말기		추마계 (변발)	왕비의 시녀 (하류층)
홍국사 벽화 2006, 성보문화재 연구원	 고려 말기	서울	추마계	예인(하류층) 변발을 이용한 머리 형태
안락국태자경 변상도 박은경, 2008 조선전기불화 연구, 시공사	 조선 초기		고계	왕비(상류층) 고계에 장식 왕비의 관은 보이지 많음

〈표3〉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비교 (2)

작 품 구 분		시기	소재지	머리모양	신분, 특징
한국의 미 16 1996, 조선불화, 중앙일보사		조선 초기		고계	왕비(상류층)
박은경, 2008, 조선전기불화 연구, 시공사		조선 초기		고계	명부층(상류층)
박은경, 2008, 조선전기불화 연구, 시공사		조선 초기 (1467)	일본 십륜사	고계 (고계장식)	비천(상류층)
강우방, 김승희 감로탱 1995, 예경		조선 초기 (1589)	일본 약선사	쌍계	예인
한국의 미 16, 1996, 조선불화, 중앙일보사		조선 초기		쌍계	시녀(하류층)
남장사 감로탱 (1701)		조선 후기	경북 상주	고계 (엮은머리)	명부층(상류층) 가채이용, 관 착용 전형적 명부층 머리

〈표4〉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비교 (3)

작 품 구 분		시 기	소재지	머리모양	신분, 특징
경국사 감로탱 (1887)		조선 후기	서울	쪽머리	사당패 (직업인, 하류층)
봉은사 감로탱 (1892)		조선 후기	서울	엷은머리	점술가 (직업인, 하류층)
선암사 감로탱 (1736)		조선 후기	전남 순천		무녀 (직업인, 하류층)
대흥사 감로탱 (1901)		조선 말기	전남 해남		무당 (직업인, 하류층)
통도사 사명암 감로탱 (1920)		조선 말기	경남 양산	쪽머리	궁중에서는 쪽머리 에 첩지를 올려 신분 표시
홍천사 감로탱 (1939)		조선 말기	서울	단발머리 땅은머리	미혼녀 개회기 말기, 땅은머리와 단발 머리 공존

제 2 절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선정

고려(918~1392)는 불교가 국가적인 종교였던 만큼 최고의 기량을 지닌 작가가 불화 제작에 참가했기 때문에 고려 불교의 심오한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불교가 국가적인 종교였던 고려시대에는 도성인 개경에만 70여개의 사찰과 수많은 귀족의 원당에 봉안된 불화를 비롯하여 법회와 도량 등 불교의식에 소용된 불화에 이르기 까지 상당수의 불화가 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불화는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조선중기의 임진왜란(1592)으로 인해 약탈당하여 대부분 일본에 건너갔다

현재 고려불화는 140여점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간 남아 있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불화를 통해 보면 아미타불화·관음보살도·지장보살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개 고려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된 불화들로 한 시기에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세의 안녕이 내세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미타 신앙에 의탁한 권문세가(權門勢家)의 현실적 종교관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⁵³⁾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불화가 사찰을 중심으로 그려졌다. 이들 불화 속에는 어느 경우에도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중 고려 말의 경우로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화 속의 여인들이다. 경화 중에서도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에는 어느 불화보다도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의 명칭에서 변상도(變相圖)⁵⁴⁾는 불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조선시대는 개국 초부터 숭유억불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불교회화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뿌리 깊은 불교사상은 민중들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53) 유마리 김승희, 『한국미의 재발견』, 서울 : 솔 출판사, 2005, p.32.

54) 부처님의 일대기 또는 불교설화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변상도(變相圖)라고 한다.

특히 조선왕 중에서도 세조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을 폈으며, 1545년 명종이 12세 어린나이에 즉위하게 되자 불심이 깊었던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면서 승려 보우를 앞세워 승과시험 및 도첩을 부활시키고 양종체계를 복원하는 등 불교 중흥을 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5세기 후반까지 왕족들의 비호 아래 불교회화가 제작되어 고려불화의 전통이 계승되었고, 역량이 뛰어난 화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수준이 뛰어난 작품이 많았으며 화풍은 고려후기의 것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 지속적인 억불정책으로 위축되었던 불교교단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등을 거치면서 일시 중흥을 보게 된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사명대사(四溟大師)유정(惟政, 1544~1610)을 비롯한 당시 승군(僧軍)의 구국활동은 집권 유생들에게 불교교단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선조 26년(1593) 3월에 유정에게 선교판사(禪敎判事)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전공(戰功)을 세운 승려에게 선과(禪科)를 수여하였고, 8월에는 도총섭(都摠攝)을 두어 승려의 활동을 일부 공식화함으로 어느 정도 승려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은 피폐해진 불교계를 수습하였고, 그를 따르는 많은 승려들에 의해 교단이 안정되어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의 중건사업이 속속 이루어졌다.

조선후기에는 정치사상으로서의 성리학이 확고하게 정착되었고, 유교식 생활문화가 점차 정착되면서 불교신도들은 대부분 양반집 부녀자나 서민 중심으로 구성되어 갔다. 불교교단은 유교식 조상숭배의 의례형식을 불교의 재의에 가미시키거나 개인적인 기복이나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등 세속적이며 민속적인 재의 형식을 도모하였다. 신앙적 차원에서도 조선후기의 불교는 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사찰에 무속이나 도교와 관계된 전각이나 그림이 많이 만들어졌다. 더구나 서민들은 계층적 억압감에서 오는 불안과 갈등을 당시 주류의 가치관에서 소외된 무속이나 불교에 안착, 귀화함으로써 현실적 고통을 희석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불교의 정교한 의례행위에 의탁하여 고통 없는 내세로 가고자 했다.⁵⁵⁾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17세기 중반의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입으로 크게 위축된 불화는

55) 유마리, 김승희, 전개서, 2005, pp.64-66.

대규모의 불사(佛事)등으로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불화 중에서 조선후기의 불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사찰마다 적게는 몇 점에서 부터 많게는 수 십점, 수 백점이 남아 있다.

〈표2〉에서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머리모양은 대부분 고려시대 말기에 제작된 것이다. 고려 불화는 주로 『관경서분변상도』나 『미륵하생경변상도』, 『수월관음도』 등 상류층 위주의 고계형의 머리모양이 특색이다.

조선초기의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그 작품이 매우 희소하여 몇 작품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임진왜란이후 조선후기에는 많은 작품들이 감로탱 형식으로 제작되어 전해오고 있으며 머리모양 또한 궁중여인들이나 직업별, 세대별 머리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대별로 재현할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모델을 선정하는 작업과정으로 들어가하고자 한다.

1. 고려 말기

1) 명부층 (상류층)

고려 말은 비빔을 비롯하여 명부층 까지를 상류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8~9〉는 고려 말 불화 중 불공을 드리는 명부층 여성의 머리모양이다. 충숙왕 10년인 1323년에 설충이 그린 것으로 일본 지은원(知恩院)에 소장되어 있으며 명칭은 『관경변상도』이다. 여기서 변상도는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관경변상도』는 관경 즉 『관수무량수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머리모양은 쌍수계라고 하며 고려 말 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기혼녀의 머리모양이다. 쌍수계는 쌍계를 아래로 내려 만든 머리 모양으로 귀 위에서 아래로 굽은 계를 늘어뜨린 머리 형태이다. 내린다는 의미로 ‘수’를 쓴 것으로 보이며, 쌍계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쌍수계는 늘어뜨렸다는 모양이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림8〉은 양쪽 귀 밑으로 쌍수계를 만들고 붉은 끈으로 묶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9〉는 묶은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모형으로 보아 동일한 형태의 머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채색이나 벽면 무늬 등의 그림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불공을 드리는 여인들로 보인다.

고려 말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자세하게 연구하고자 할 경우 원의 머리모양을 참고하게 되는데 이는 고려 말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원의 머리모양을 그대로 들여와 시술하였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림8〉을 재현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려 말 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기혼녀 머리로 비교적 머리모양이 뚜렷하고 무엇보다도 고려인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 그림 8 〉 관경서분변상도
한국의 미, 1992, 중앙일보사



〈 그림 9 〉 관경서분변상도
한국의 미, 1992, 중앙일보사

2) 평민(중류층)

고려 말 중류층 여성은 농업을 비롯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민계층의 여성들이다. 고려 말 불화에서 중류층 여성의 머리모양으로 가장 많은 형태가 엷은머리와 쪽머리, 채 머리이다. 엷은머리나 쪽머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기혼녀의 머리 형태이다. 채 머리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내린 형식으로 처녀들의 머리 형태로 정착하였다. 특이한 것은 중류층 여성들의 머리모양은 매우 자유스러웠다는 점이다.

〈그림10〉은 고려말기 평민층의 여인들이다. 두 여인 중 앞의 여인은 미혼녀이고 뒤의 여인은 기혼녀이다. 미혼녀는 긴 채 머리를 뒤로 돌려 돌렸으며 기혼녀는 머리위에 검은 쓰개를 쓴 머리 형태이다. 미혼녀의 머리모양은 채 머리로 가발을 돌려 쓴 것 같이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

〈그림11〉은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들이다. 여인들은 직업이 연주하는 기인인지 아니면 사찰의 행사에 동원된 사람인지 구분이 어렵지만, 똑 같은 차림새에 머리를 화려하게 치장까지 한 것이 똑 같은 것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계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그림 10 〉 관경서분변상도
고려시대 불화, 1996, 시공사



〈 그림 11 〉 관경서분변상도
고려시대 불화, 1996, 시공사

3) 시녀 (하류층 1)

고려 말 하류층은 시녀, 하녀, 기생, 예인 등으로 주로 천민으로 구분되었던 계층을 말한다. 하류층의 머리 형태로는 쌍계를 비롯하여 쌍수계, 아환계, 추마계 등이 있다.

〈그림12〉의 머리 형태는 추마계이다. 추마계는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유행했던 중국 여인들의 대표적인 머리모양이다.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유행했던 것으로 보아 다른 머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일명 타마계(墮馬髻)라고도 하는데 이 머리는 글자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을 때의 머리모양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

로 이 머리모양은 재상 양기의 부인인 손수에 의해 창안된 머리이다. 손수는 현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머리모양뿐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맵시를 만든 여인으로 유명하다. 추마계는 자유 분명한 머리모양으로 처음에는 상류층의 여인들이 즐겨하던 머리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로 연예 계통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많이 하였다고 전해진다. 고려 말 기녀들이 이 머리모양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서궁의 『고려도경』⁵⁶⁾에도 나오는데, 칠석날 송나라 사신들에게 접대하던 고려의 관리가 기녀들의 가무를 보여 주면서 기녀들의 머리가 추마계라고 말하자 송나라 사신이 이르기를 저것은 한나라 재상 양기의 처 손수가 창안한 것인데 본받을 것이 못된다고 하는 대목이 있다. 훗날 조선 초 선비들이 이 머리모양이 썩 단정하지 못한 머리모양이라는 평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전머리 형성과정에서 이 머리모양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제작방법이나 변형 등 고전머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12〉, 〈그림13〉은 왕비와 후비의 시녀들이다. 시녀들의 머리는 한족(漢族)의 머리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마계의 머리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머리장식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데 이 것 또한 송나라 시녀들이 화려하게 치장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림 12〉 미륵하생경변상도
한국의 미, 1996, 중앙일보사



〈그림 13〉 미륵하생경변상도
한국의 미, 1996, 중앙일보사

56) 서궁, 『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회, 1977, p.127.

4) 예인 (하류층 2)

〈그림14〉, 〈그림15〉는 사찰벽화로 변발을 이용한 머리 형태이다. 머리 모양이나 꾸민 형태로 보아 예인들의 치장으로 보인다. 변발은 머리카락을 세 갈래로 땋아 늘인 머리모양으로 편발, 승발, 삭두라고도 불리었다. 변발은 유목민족에서 머리카락이 서로 엉키지 말라고 땋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북방민족의 풍습이다.

미혼녀의 머리형은 원래 속발로 하던 것이 고려 후기에 몽고풍이 들어오면서부터 변발(辮髮 : 땋은 머리)로 하게 되었다. 변발은 단군신화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아 부족국가 시대에도 있었으나 보편화 된 것은 이 때부터이다. 따라서 부녀의 머리도 조선시대의 쪽처럼 땋아서 틀어 묶게 되었다고 본다.⁵⁷⁾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도 변발이 보이는데 미혼녀는 머리를 땋아 뒤로 한 가닥으로 땋았으며 기혼녀의 경우 두 가닥으로 늘어뜨렸다. 고려 말에는 개체 변발의 풍습이 있었다. 처녀나 총각은 머리를 땋아 늘어 처녀는 홍색으로 총각은 검은색으로 땋기를 묶었는데 이 풍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 그림 14 〉 홍국사 벽화
2006, 정보문화재연구원



〈 그림 15 〉 칠장사 벽화
2006, 정보문화재연구원

57) 정매자, 정선정, 서동석, 안현경,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서울 : 청구문화사, 2008, p.64.

2. 조선 초기

1) 왕비 (상류층 1)

조선시대 상류층 여인이란 비빈을 비롯한 명부층을 말한다. 명부는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 주는 여인으로 내명부와 외명부로 구분되어 있다. 내명부는 궁궐 내에서 기거하는 계층으로 가장 높은 품계는 후궁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정 1품 빈이다. 비는 지엄하신 오로지 한 분으로 명부에 속하지 않는다.⁵⁸⁾

조선시대로 들어와 왕비의 관은 보이지 않지만 형태는 훨씬 화려해진 것으로 보인다. 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고려 말의 불화와 다른 점일 것이다. 왕조시대에 왕 혹은 왕비의 모습이 그려져 전해져 오는 경우는 불화와 민화, 무속화 뿐이다. 궁 바깥에서 이른바 어진(御眞)이 그려져 돌아다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⁵⁹⁾ 공식적인 행사를 그린 그림에도 왕과 왕비는 물론이고 왕세자의 모습도 그릴 수 없었다. 지엄의 상징은 오로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 의식을 치르고 봉안되었다. 그림에도 민간에서 왕과 왕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유 분명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유와 상징의 의미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대에 그려졌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무시해 서는 안 된다. 조선 말에 무속화에 자주 등장하는 왕 부부상을 상상의 산물로 보면서도 사실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듯이 조선 초 불화에 그려져 있는 왕비의 모습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초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유교와 연관된 그림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유교의 윤리관에서 여인들은 가능한 한 집안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대부들에게 개방적 이였기 때문에 불심이 있는 여인들은 언제라도 절을 찾았다. 불화 속에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 초 여인의 머리모양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실성에 있다. 얼마만큼 현실감과 사실성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자료적 가치는 달라지기

58) 박민경, 전개논문, 2009, p.26.

59) 조선미, 『초상화연구』, 서울 : (주)문예출판사, 2007, p.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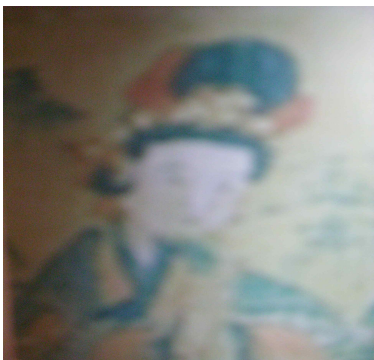
때문이다.⁶⁰⁾ 조선 초기 왕비의 머리모양을 살펴보기 위하여〈그림16~ 19〉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림16〉은 조선 초기 불화로 명칭은 『안락국태자경변상도』이다. 왕비를 그린 작품이지만 내명부 중 비와 빈을 비롯한 궁중의 여인들이 많이 한 머리 형태로 보편적이 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 대상으로 삼았다. 이 머리는 위 아래로 나누어 묶어 가체를 덧대어 표현하였고 보석과 구슬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17~19〉는 수월관음도, 변상도에 있는 여인들로서 왕비나 후비로 추정되며 모두가 불공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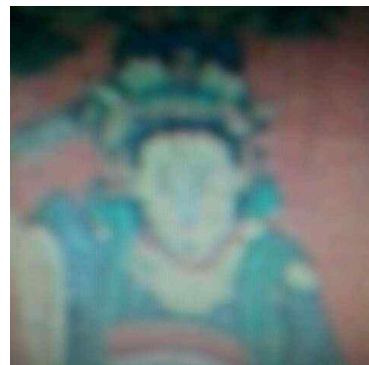
〈 그림 16 〉 박은경, 2008,
조선전기 불화연구, 시공사



〈 그림 17 〉 한국의 미 16,
1996, 중앙일보사



〈 그림 18 〉 한국의 미 16,
조선불화, 중앙일보사



〈 그림 19 〉 한국의 미 16,
조선불화, 중앙일보사

60) 이숙경, 전제논문, 2010, p.52.

2) 명부층 (상류층 2)

조선 초기 명부층의 머리모양은 고계형에 장식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조선에서 가체가 유행하기 전단계로서 밑머리에 다리를 덧대어 올린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원의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다. 원은 변발을 위주로 큰 형태로 머리를 만들었으며 특히 머리 정상부위로 굵은 변발을 올린 것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20 〉 명부층
조선전기불화연구, 시공사



〈 그림 21 〉 비천
조선전기불화연구, 시공사

〈그림20〉는 명부층 중에서도 상위 계급으로 보이는 여인들이다. 후비 일지도 모른다. 화려한 의상에 화려하게 장식한 가체 관을 올린 모습이 단연 돋보인다. 조선의 명부들이 얼마나 머리치장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이 불화 한 장면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⁶¹⁾

비천상은 불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비천상으로 알 수 있는 머리모양은 당시 여인들의 머리 형태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느끼게 해준다. 여인의 머리모양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일간 형태적으로 인공미와 자연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해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고려 말의 불화에 이르기까지 비천상은 중요한 지점에 그려져 있다. 고분의 천정부분이나 동종의 타종부분에서 아름다운 비천상의 머리모양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사찰의 벽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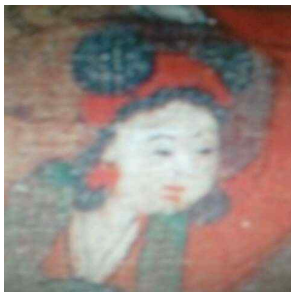
61) 곽민경, 전계논문, 2009, p.31.

비천상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전 속의 머리 형태에서 이 점을 중시해서 보면 인공미와 자연미는 금방 구분해 낼 수 있다. 고려 말의 머리모양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면이 나타나 있는 세련미이다. 조선 초 불화에서도 그런 면은 똑 같이 발견된다. 오히려 더 세련되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림21〉은 고려 말의 관경변상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천상이지만 장식 이 요란하다 할 정도로 화려하고 머리모양은 높고 크다. 1467년 작으로 역시 일본의 십륜사에 소장되어 있는 오불회도의 일부이다. 15세기 후반기로 이때는 가चे머리나 트레머리가 다대해지기 전이므로 조선의 여인들 중에서도 명부 층의 머리 꾸미기에 있어서 동경하던 멋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3) 예인

직능별 분류에서 예인들의 모습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민속 예술의 전승자이고 더 나아가 근대 연예의 뿌리로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남사당과 여사당, 그리고 유량 예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역불에 시달리는 불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약선사 감로탱에는 전통적이 유량예인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 그림 22 〉
약선사 감로탱(1589)



〈 그림 23 〉
약선사 감로탱(1589)



〈 그림 24 〉
약선사 감로탱(1589)

62) 이숙경, 전계논문, 2010, pp.55-56.

〈그림22〉는 춤을 추고 있고 나머지 두 여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머리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 들의 머리모양은 주악을 연주하는 예인들이 흔히 하고 다니는 형태로 유명하다. 고려 때의 고분벽화로 유명한 경남 거창의 둔마리 고분 벽에 있는 주악녀의 머리모양도 이들과 흡사하다. 특히〈그림22〉의 형태는 쌍계의 전통에 입각한 것 이어서 감로탕에 있는 예인들의 머리모양이 변천의 맥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⁶³⁾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림22〉 예인의 머리 형태는 쌍계의 전통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쌍계머리를 재현하는데 모델작품으로 선정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4) 시녀 (하류층)

조선 초기 불화에서 보이는 시녀계층은 일하는 장소나 연령층에 따라 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신분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 나름의 불문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⁶⁴⁾



〈 그림 25 〉 박은경, 2008, 조선전기 불화연구, 시공사



〈 그림 26 〉 한국의 미 16, 1996, 조선불화, 중앙일보사

불화에서 하류층 여인들은 대부분 시녀들이다. 〈그림26〉의 머리모양은 위나 아래를 똑 같은 쪽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쌍계이며, 미혼녀나 하류층 여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63) 곽민경, 전계논문, 2009, p.62.

64) 이숙경, 전계논문, 2010, p.54.

3. 조선 후기

16세기말과 17세기 중반의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입으로 크게 위축된 불화는 양란을 거친 후 대규모 불사 등으로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불화 중에는 초기 후기의 불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사찰마다 수십, 수 백점의 불화를 소장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감로탱에는 다수의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등장하고 있어 우리의 고전머리 연구 활용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 명부층

조선 후기 감로탱에 등장하는 연인들의 머리모양은 가체를 사용해서 관을 착용한 전형적인 명부층의 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머리를 과감하게 위로 올려 일단 묶어서 처리한 뒤 위에 가체를 덧 대어 크게 올린 고계형의 형태이다. 중국에서 건너 온 이 머리모양은 궁중여인은 물론이고 일반부녀자들에게 까지 널리 퍼져 성행하였는데 너무 사치스럽다는 폐단이 있어 나라에서 가체금지령까지 내려졌으나 크게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림27~29〉는 가체금지령 이전의 감로탱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형태이다. 역사인식이나 선명도 등으로 보아 재현가치가 충분하나 고계형의 머리모양을 조선 초에서 이미 선정하였기에 재현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 그림 27 〉
남장사 감로탱(1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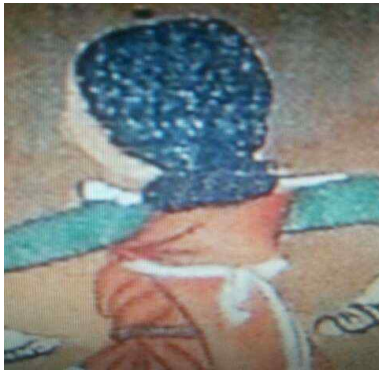
〈 그림 28 〉
구룡사 감로탱(1727)



〈 그림 29 〉
쌍계사 감로탱(1728)

2) 직능인 1 (사당패)

조선 후기 감로탱에서는 사당패들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오늘날의 무희나 무당들의 머리모양과 흡사하다. 불교와 무속신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융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을 위로해 준다는 뜻에서는 불교와 무속이 같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불자들 속에는 유난히 무속적인 토속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림 30〉
경국사 감로탱(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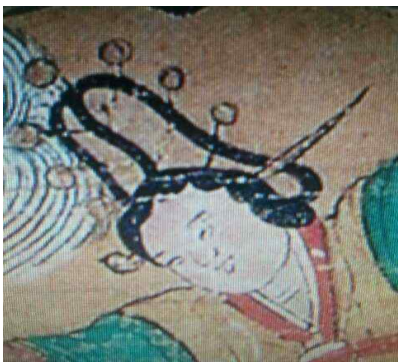
〈그림 31〉
개인소장 감로탱

〈그림30〉과 〈그림31〉은 예인들 중에서도 사당패의 머리모양이다. 조선말기의 머리모양으로 당시 기생들이 하고 있던 쪽머리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감로탱에서 볼 수 있는 사당패의 머리는 김준근의 풍속화에 나오는 머리모양보다 더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뒤에서 땀은 두 가닥 머리를 한데 모아 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모아 비녀를 꽂은 형태이다. 그러다 보니 마치 두 개 쪽처럼 보인다. 〈그림31〉은 각기 쪽을 만들 때 머리를 모아 묶은 것으로 보인다. 사당패의 쪽머리는 국말의 머리변천을 말해 주는 좋은 본보기이다.⁶⁵⁾ 〈그림30〉을 재현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머리모양이 선명하고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고유의 머리모양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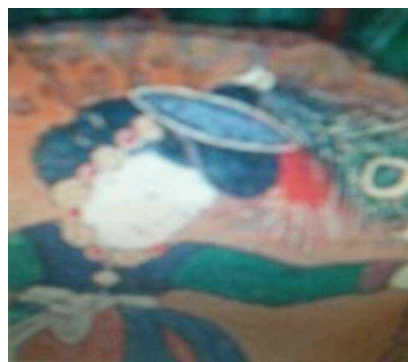
65) 박민경, 전계논문, 2009, p.64.

3) 직능인 2 (무당)

감로탱의 하단에는 속세의 다양한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 옛날 시골시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장장이, 어물장수, 엿장수, 포목장수, 술집 주인, 짚신장수, 농부는 물론이고 장대 위 묘기, 줄타기, 가면극, 사당패, 굿판의 무당, 춤추는 무녀 등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굿판을 벌이고 있는 무당들의 모습이다. 무당이 굿판을 벌이고 춤을 추는 장면들이 여러 감로탱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민들 사이에 무속이 얼마나 뿌리 깊게 침투하고 있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그림 32 〉
선암사 감로탱(1736)



〈 그림 33 〉
봉은사 감로탱(1892)

〈그림32〉는 선암사 감로탱(1736)에 그려져 있는 춤추는 무당의 모습과 머리모양이며, 〈그림33〉은 봉은사 감로탱(1892)에 그려져 있는 무당의 춤추는 모습이다. 선암사 감로탱에 그려져 있는 무당의 머리모양은 매우 우수광 스러운 모습으로 시각적인 재미가 있다. 봉은사 감로탱은 한결 세련미가 있는 머리모양과 복장으로 오늘날의 무당 모습과도 흡사하다. 춤추는 무당들의 머리모양도 특이하고 재미가 있어 재현해 볼 필요는 충분하나, 사당패의 쪽머리를 이미 앞에서 선정하였기에 연구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4) 미혼녀, 기혼녀

남녀노소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는 감로탕에는 미혼녀나 기혼녀의 머리 모양이 자주 등장한다. 〈그림34〉는 홍천사 감로탕에 그려져 있는 미혼녀들의 머리모양으로 전통적 땅은 머리와 단발한 머리모양이 같이 그려져 있다. 여성들에 있어서 단발머리는 근대화에 앞서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중시하였던 시대상조에 비추어 보아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1920년대 유럽을 휩쓴 보브스타일 즉 단발머리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홍천사 감로탕에서는 개화기가 끝나갈 무렵 땅은 머리와 단발머리가 공존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엿 볼 수 있다.



〈 그림 34 〉
홍천사 감로탕(1939)



〈 그림 35 〉
홍천사 감로탕(1939)

〈그림35〉은 이른바 신여성이다. 파마한 모습이다. 파마는 1933년경 백계 러시아인이 정동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미용실에서는 1935년부터 오엽주 미용실에서 시술하기 시작했다.⁶⁶⁾

본 연구에서 5번째의 재현작품으로 선정한 〈그림34〉의 땅은 머리는 조선말기 개화의 바람이 거센 와중에서도 그려진 전통의 땅은 머리라는 점에서 재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6) 김수정, 『한국미용백년』, 서울 : 동서교류, 2005, p.98.

제 3 절 재현대상 머리모양 선정

이상으로 재현대상으로 삼을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특색있는 머리모양을 <표2>~<표4>까지 도표로 정리하고 이들 머리모양 중에서 시기별, 머리유형별, 신분별로 머리모양을 비교·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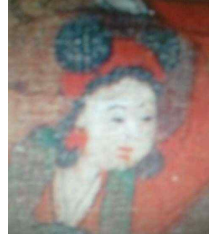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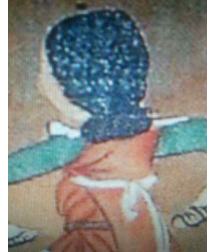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시기별, 머리유형별, 신분별로 머리모양을 재현하고 일러스트로 해서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류별로 세세하게 다루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현과 일러스트를 거쳐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선정기준으로는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머리모양을 우선하였다. 『쌍수계』의 모델로는 고려 말 『관경서분변상도』의 명부층 머리를 모델로 삼았고, 『고계』의 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인 『안락국태자경변상도』를 모델로 선정하였다.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왕비를 그린 작품이지만 내명부 중 비와 빈을 비롯한 궁중의 여인들이 많이 한 머리 형태로 보편적이 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대상으로 삼았다.

『쌍계』의 머리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로 가장 오래되고 쌍계머리 형태가 가장 선명하게 구분되는 약선사 감로탱의 직업인(예인)의 머리를 선정하였으며, 『쪽머리』의 모델로는 머리모양이 선명하고 고유의 우리 머리모양으로 친근감을 주는 조선후기 직업인(사당패)의 머리를, 『땅은 머리』의 모델로는 조선말기 개화의 바람이 거센 와중에서도 전통의 땅은 머리가 그려졌다는 점에서 재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재현 대상으로 선정한 머리모양은 모두 5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 말에서 1기(쌍수계 : 관경서분변상도), 조선초기에서 2기(고계 :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쌍계 : 약선사 감로탱), 조선 후기·말기에서 2기(쪽머리 : 경국사 감로탱, 미혼녀 땅은 머리 : 흥국사 감로탱) 등이 그 것이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표5>와 같다.

〈표 5〉 재현 대상으로 선정한 머리모양

구 분	재현 대상 작 품	머리유형, 출처	신분층
고려 말기		쌍수계 『관경서분변상도』	상류층 (명부층)
조선 초기		고 계 (엮은 머리)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상류층 (왕비)
조선 초기		쌍 계 약선사 감로탱	중류층
조선 후기		쪽머리 경국사 감로탱	하류층 (사당패)
조선 말기		땡은 머리 흥천사 감로탱	미혼녀

제 4 절 현대 헤어스타일의 효용성

우리나라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그 시대의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머리 연구나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우리고유의 전통머리와 함께 그 시대의 풍속과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머리 모양은 신분에 따라 머리모양의 크기나 높이, 길이가 달랐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여성들이 신분에 따라 머리를 가꾸는데 별 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가채머리만 하더라도 얇은 머리, 트레머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으며 평민층이나 하류층 여성의 머리형태도 상류층과 구분 없이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으며, 미에 대한 집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미에 대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머리모양이다. 사실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현대 헤어스타일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 온 면도 있으나, 이러한 인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화 중에서도 특히 감로탱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독특한 그림으로 조상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여인들의 여러 가지 머리모양을 접할 수 있어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에 좋은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헤어스타일은 짧은 시간 내에 쉽고 간단하게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길이, 모양, 컬러 등을 자신의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붙여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붙임머리에서 중모머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 헤어스타일의 뿌리는 불화 속 여인들의 다양한 머리모양을 포함한 전통머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선행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머리모양의 풍부한 소재 제공은 헤어스타일의 변천사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발전시켜 나간다면 현대 헤어스타일에 미치는 효용성은 배가 될 것이다.

제 4 장 재현과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제 1 절 명부층 (쌍수계)



〈 그림 8 〉 과 동일, 『관경서분변상도』
한국의 미, 1992, 중앙일보사

그림 설명 : 양쪽 귀 밑으로 쌍수계를 만들고 붉은 끈으로 묶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재현대상으로 삼은 것은 고려 말 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기혼녀 머리로 비교적 머리 모양이 뚜렷하고 무엇보다도 고려인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1. 재현 작품 (고려 말기 명부층)



〈 사진 1 〉 재현작품 전면



〈 사진 2 〉 재현작품 후면



〈 사진 3 〉 재현작품 측면(좌)



〈 사진 4 〉 재현작품 측면(우)

2. 일러스트레이션 (고려 말기 명부층)



〈 사진 5 〉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3.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고려 말기 명부층)

〈사진 41~44〉는 고려 말기 명부층 기혼녀의 머리를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한 작품이다. 양쪽으로 나누어 바구니 땃기로 볼륨감을 주면서 네이프 밑으로 늘어 뜨려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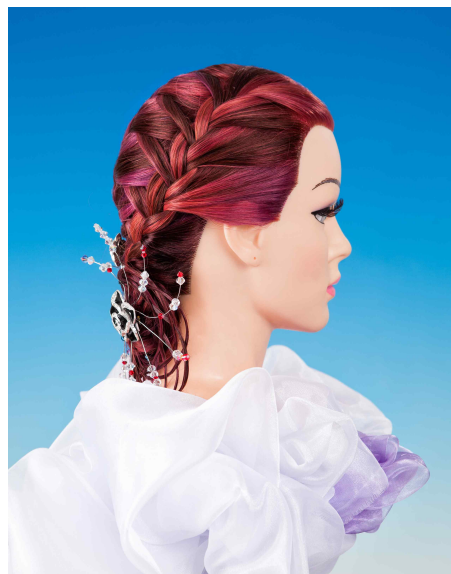
〈 사진 6 〉 응용작품 전면



〈 사진 7 〉 응용작품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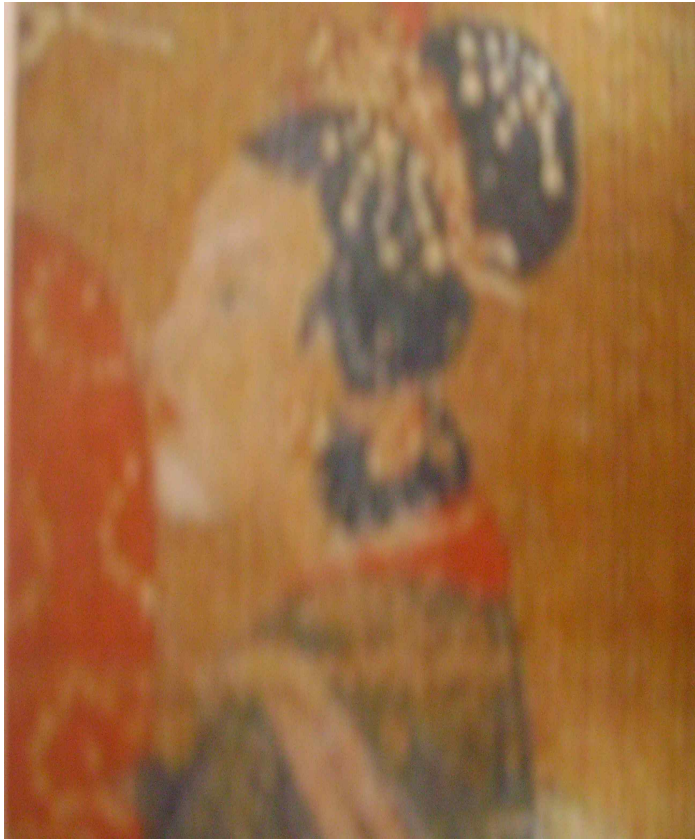


〈 사진 8 〉 응용작품 측면(좌)



〈 사진 9 〉 응용작품 측면(우)

제 2 절 왕비 (고계)



〈 그림 16 〉 과 동일, 『안락국태자경변상도』
박은경, (2008), 조선전기 불화연구, 시공사

그림 설명 : 이 작품은 머리를 위 아래로 나누어 묶어 가체를 덧대어 표현하였으며, 찬란한 보석과 구슬을 이용하여 장식을 화려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 초기 불화로 왕비를 그린 작품이지만 내명부 중 비와 빈을 비롯한 궁중의 여인들이 많이 한 머리 형태로 보편적인 머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대상으로 삼았다.

1. 재현 작품 (조선 초기 왕비)



〈 사진 10 〉 재현작품 전면



〈 사진 11 〉 재현작품 후면



〈 사진 12 〉 재현작품 측면(좌)



〈 사진 13 〉 재현작품 측면(우)

2. 일러스트레이션 (조선 초기 왕비)



〈 사진 14 〉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3.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조선 초기 왕비)

〈사진 50~53〉은 조선 초기 왕비의 머리모양을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한 작품이다. 탑에 토대를 주어 높이 올려 소라의 모양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고, 뒷 부분은 피스를 덧 되어 양옆으로 활짝 퍼져 보이게 장식을 하고 왕비의 아름다움을 장식으로 마무리 하였다.



〈 사진 15 〉 응용작품 전면



〈 사진 16 〉 응용작품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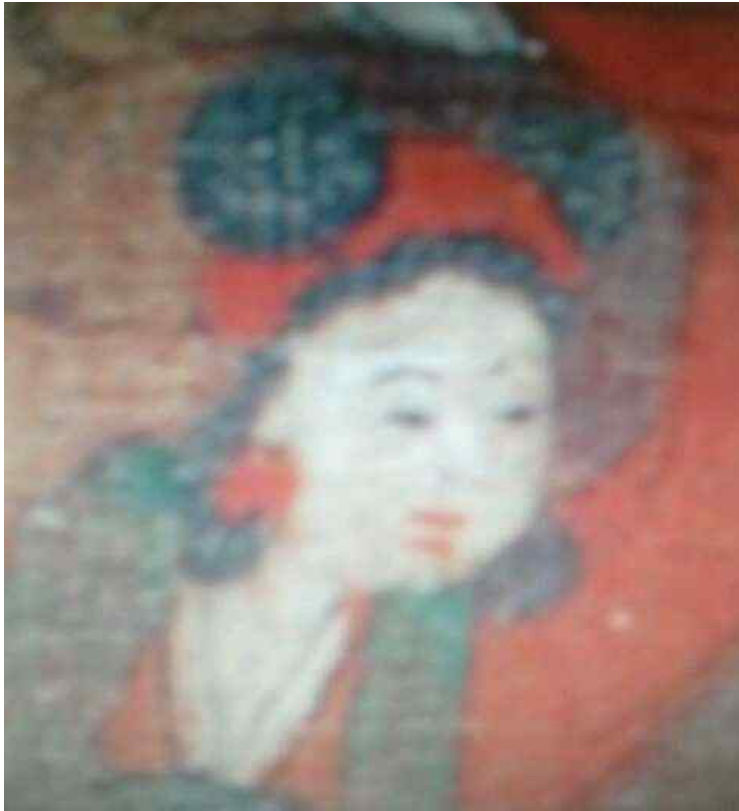


〈 사진 17 〉 응용작품 측면(좌)



〈 사진 18 〉 응용작품 측면(우)

제 3 절 예인 (쌍계)



〈 그림 22 〉 와 동일, 약선사 감로탱 (1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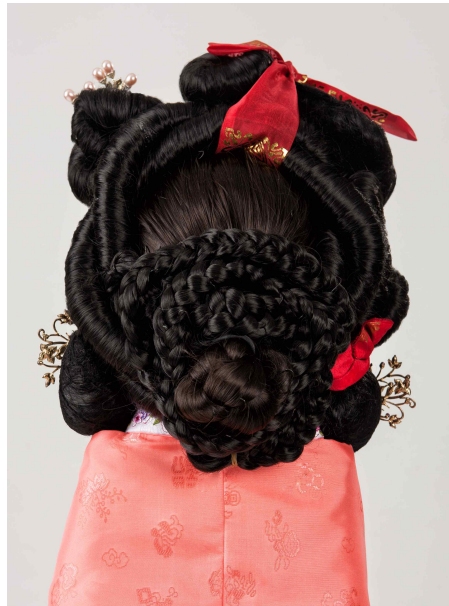
그림 설명 : 머리모양은 주악을 연주하는 예인들이 흔히 하고 다니는 형태이다. 고려 때의 고분벽화로 유명한 경남 거창의 둔마리 고분 벽에 있는 주악녀의 머리모양도 이와 아주 흡사하다.

예인의 머리 형태는 쌍계의 전통에 입각한 것 이여서 감로탱에 있는 예인들의 머리모양이 변천의 맥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쌍계머리를 재현하는데 모델작품으로 선정하였다.

1. 재현 작품 (조선 초기 예인)



〈 사진 19 〉 재현작품 전면



〈 사진 20 〉 재현작품 후면



〈 사진 21 〉 재현작품 측면(좌)



〈 사진 22 〉 재현작품 측면(우)

2. 일러스트레이션 (조선 초기 예인)



〈 사진 23 〉 일러스트레이션 후면

3.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조선 초기 예인)

〈사진 59~62〉는 조선 초기 예인들의 머리 형태인 쌍계머리를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한 작품이다. 화려한 헤어바이나이트 머리 형태로 앞면보다 뒤면의 아름다움을 화려하게 나타낸 머리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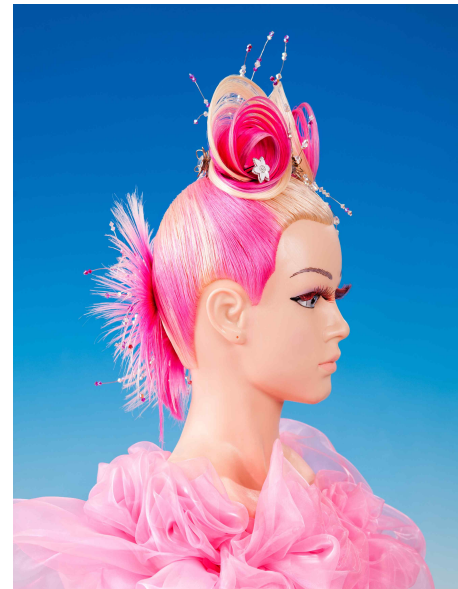
〈 사진 24 〉 응용작품 전면



〈 사진 25 〉 응용작품 후면



〈 사진 26 〉 응용작품 측면(좌)



〈 사진 27 〉 응용작품 측면(우)

제 4 절 사당패 (쪽머리)



〈 그림 30 〉 과 동일, 경국사 감로탱 (1727)

그림설명 : 예인들 중에서도 사당패의 머리모양이다. 조선말기의 머리모양으로 당시 기생들이 하고 있던 쪽머리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뒤에서 땀은 두 가닥 머리를 한데 모아 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모아 비녀를 꽂은 형태이다. 그러다 보니 마치 두 개 쪽처럼 보인다. 재현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머리모양이 선명하고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는 고유의 머리모양이기 때문이다.

1. 재현 작품 (조선 후기 사당패)



〈 사진 28 〉 재현작품 전면



〈 사진 29 〉 재현작품 후면



〈 사진 30 〉 재현작품 측면(좌)



〈 사진 31 〉 재현작품 측면(우)

2. 일러스트레이션 (조선 후기 사당패)



〈 사진 32 〉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3)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조선후기 사당패)

〈사진 68~71〉은 조선 후기 사당패 여인들의 머리를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한 것으로, 고전의 쪽머리와 달리 모근에서부터 볼륨을 주어 살짝 귀 밑에 흘러내린 듯 토대를 백 포인트에 세 가닥으로 나누어 가볍게 핀 처리 했다.



〈 사진 33 〉 응용작품 전면



〈 사진 34 〉 응용작품 후면



〈 사진 35 〉 응용작품 측면(좌)



〈 사진 36 〉 응용작품 측면(우)

제 5 절 미혼녀 (땡은 머리)



〈 그림 34 〉와 동일, 홍천사 감로탱 (1939)

그림 설명 : 홍천사 감로탱에 그려져 있는 미혼녀들의 머리모양으로 전통적 땡은 머리와 단발한 머리모양이 같이 그려져 있다. 여성들에 있어서 단발머리는 근대화에 앞서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중시하였던 시대상조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이였으나, 땡은 머리는 조선말기 개화의 바람이 거센 와중에서도 그려진 전통의 미혼녀 머리라는 점에서 재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 재현 작품 (조선 말기 미혼녀)



〈 사진 37 〉 재현작품 전면



〈 사진 38 〉 재현작품 후면



〈 사진 39 〉 재현작품 측면(좌)



〈 사진 40 〉 재현작품 측면(우)

2. 일러스트레이션 (조선 말기 미혼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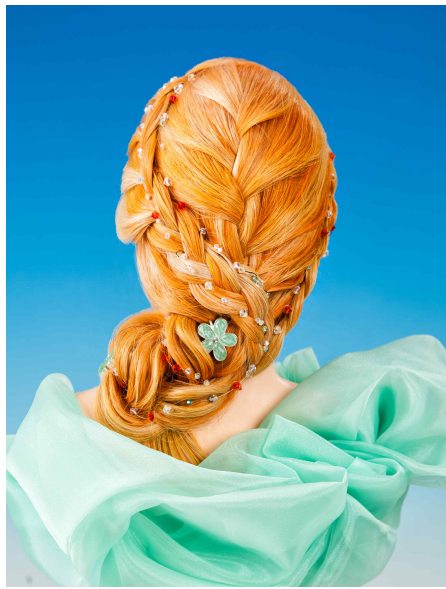
〈 사진 41 〉 일러스트레이션 정면

3.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 (조선 말기 미혼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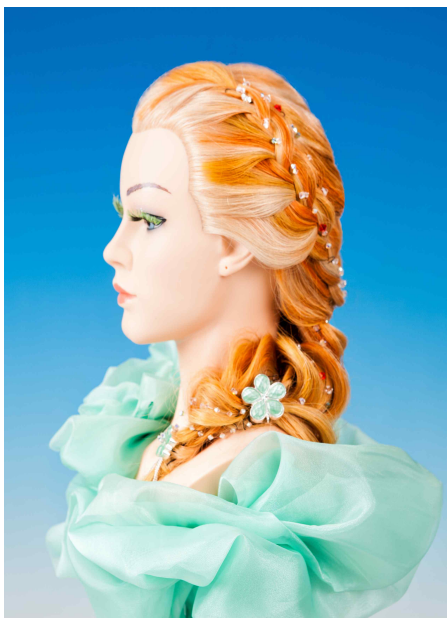
〈사진 77~80〉는 조선 말기 미혼녀의 땅은 머리를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볼륨을 주어 한쪽 방향으로 끌어 땅기 한 머리 형태로 긴 머리에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다.



〈 사진 42 〉 응용작품 전면



〈 사진 43 〉 응용작품 후면



〈 사진 44 〉 응용작품 측면(좌)



〈 사진 45 〉 응용작품 측면(우)

제 5 장 결 론

제 1 절 결 론

본 연구는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 고찰 결과를 토대로 시대별, 유형별 재현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이들 작품의 재현을 통하여 현대 스타일에 응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루어졌다.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고전의 전통문화를 습득하고 계승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에도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불화 속에서도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주로 감로탱에 그려져 있다. 연구에서 감로탱을 중시 여기는 것은 감로탱 중단과 하단에서 그 시대의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어 재현 및 일러스트를 통하여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에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 및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는 재현대상 머리모양 선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다양한 머리모양 수집, 문헌적인 자료 탐구와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등을 중점적으로 섭렵하였다.

둘째는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분석하여 재현작품을 선정하는 일이다. 재현작품 선정은 시대별로 고려 말기, 조선 초기,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구분하여 관련 문헌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선정 기준으로는 머리모양을 우선하였다. 『쌍수계』의 모델로는 고려 말 『관경서분변상도』의 명부층 머리를, 『고계』의 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인 『안락국태자경변상도』를 모델로 선정하였다. 『쌍계』의 머리모델로는 조선 초기 불화로 가장 오래되고 쌍계머리 형태가 가장 선명하게 구분되는 약선사 감로탱의 직업인(예인)의 머리를 선정하였으며, 『쪽머리』의 모델로는 조선 후기 직업인(사당패)의 머리를, 『땅은 머리』 모델로는 조선 말기 미혼녀의 머리를 선정하였다.

셋째는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기 위한 작

품재현 방법이다. 최종 선정된 5기에 대해서 불화 속의 머리모양을 먼저 재현하고, 재현한 작품을 토대로 일러스트 작업을 통하여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는 절차를 택하였다. 아울러 감로탱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가체 사용으로 무게나 길이 때문에 모델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마네킹을 이용한 머리모양 작업을 선택하였다.

완성한 재현작품과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현대 헤어스타일 응용작품은 사진 촬영을 통해 전면과 후면, 좌·우 측면을 싣고 설명과 함께 제시하여 다음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재현하고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불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머리모양을 그림으로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 선명하지도 않고 머리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자료가 없어 선별해 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어려웠다. 사실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이 불화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감로탱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을 참고하더라도 머리모양에 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에서 나타난 문헌 속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이 궁중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머리모양과 관련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불화 속에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행히 불화와 관련한 몇 편의 선행 연구논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고 연구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 중에서 재현대상으로 삼을 만한 머리모양 선정의 어려움이다. 다양한 머리모양을 재현해 보려는 당초의 의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재현대상으로 삼을 만한 불화를 선택한 후에도 신분별, 계층별로 구분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고

계형의 머리나 쌍계형의 머리모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재현작품 5기 선정도 쉽지 않았으며, 불화 속에 다양한 머리모양이 그려져 있다는 기존 연구 자체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끝으로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 자료 수집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총 망라한 자료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헌이나 연구결과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감로탱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떼어 내어 부분도로 연구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머리모양도 변형되고 출처도 제각각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시대순, 신분별, 머리유형별로 구분하여 한 눈에 접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해설을 덧붙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다면 자료 수집하는데 훨씬 쉬워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찾아 내 재현하고, 재현작품을 토대로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머리에 대한 애호가 전통머리에 대한 계승으로 그치지 않고 재현작업을 통한 분석 및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을 적용한 현대 헤어스타일에 응용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연구의 진전은 다음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우방, 김승희, 『감로탕』, 서울 : 예경, 1995.
- 강우방, 『감로탕의 양식변천과 도상 해석』, 서울 : 예경, 1995.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서울 : 신유문화사, 1995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 한국박물관학회, 2002.
- 김동욱,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아세아 문화사, 1973.
- 김수정, 『한국미용 백년』, 서울 : 동서교류, 2005.
- 김승희, 『감로탕의 도상과 신앙의례』, 서울 : 예경, 1995.
- 김영주, 『조선시대 불화연구』, 서울 : 지식산업사, 1986.
- _____ 『한국의 불교미술사』, 서울 : 솔 출판사, 1996.
- 김정희, 『불화, 찬란한 불교미술의 세계』 서울: 도서출판 돌 베게, 2009.
- 김용숙,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서울 : 일지사, 1987.
- 김영숙, 『한국복식사문화사전』, 서울 : 미술문화, 1998.
- 문명대, 『한국불교미술사』, 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 _____ 『한국의 불화』, 서울 : 열화당, 1997.
- _____ 『고려 불화』, 서울 : 열화당, 1991.
- 박경숙, 『헤어일러스트레이션』, 서울 : 제일문화사, 1997.
- 박은경, 『조선전기 불화 연구』, 서울 : 시공사, 2008.
- 손미경, 『한국여인의髮자취』, 서울 : 이환출판사, 2004.
- _____, 『고전머리 따라하기』, 서울 : 미디어뷰, 2007.
- 유마리, 김승희, 『불교회화-한국미의 재발견 07』, 서울 : 솔 출판사, 2005.

- 유송옥, 『한국복식사』, 서울 : 수학사, 1998.
- 유승원, 『조선초기 신분제 연구』, 서울 : 을유문화사, 1988.
-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 이기영, 『한국불교 연구』, 서울 : 한국불교연구소 출판부, 1982.
-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서울 : 일지사, 1983.
- 이상은, 『조선왕조복식사론』, 서울 : 동방도서주식회사, 1992.
- 이여성, 『조선복식고』, 서울 : 백양당, 1947.
- 이왕직, 『조선고분벽화집』, 서울 : 이왕직, 1910.
- 이홍직, 『국사대사전』, 서울 : 일중당, 1978.
- 장충식, 『한국불교미술연구』, 서울 : (주)시공사, 2004.
- 정매자, 전선정, 서동석, 안현경,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치장』,
서울 : 청구문화사, 2008.
- 조용길, 『불교문화의 전개와 불교예술』, 서울 : 여래, 2006.
-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서울 : 열화당, 1983.
- _____, 『초상화연구』, 서울 : (주)문예출판사, 2007.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서울 : 일지사, 1995.
- 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시리즈 - 조선 불화편(16)』, 1996.
- _____, 『한국의 미』, 198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서울 : 대원정사, 1994.
- _____, 『고려불화의 연구』, 서울 : 동화출판사, 1984.

2) 학위논문

- 곽민경, 「조선시대 감로탱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권승규, 「영·정조시대의 가체금지령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권태향, 「조선조 감로탱화 도상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감로탱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권태전, 「감로탱화에 나타난 풍속화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권혁근, 「조선시대 후기불화의 시기적 변화에 따른 특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신하, 「조선시대 문헌속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통한 현대 업스타일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수영, 「감로탱화 하단 옥계부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주영, 「조선시대 여인의 신분별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지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정민, 「감로탱화의 도상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배송이, 「조선초기 관경십육관변상도의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손복심,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 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심창용, 「조선후기 감로탱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안선희, 「조선후기 감로탱화의 도상학적 고찰 - 18세기 감로탱화를 중심

- 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유마리, 「여말선초 관경십육변상도, 미술사학연구 제208호」, (사)한국미술사학회, 1995.
- 유화숙, 「용주사 감로탱화의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윤보영, 「조선시대 감로탱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경화,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나타난 풍속장면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금숙, 「한국 전통미가 반영된 머리모양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이숙경, 「여말선초 여성의 고전머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이영숙, 「조선시대 내명부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영주, 「조선시대 가채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임영주, 「한국불화의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임영수, 「감로 탕에 나타나는 풍속화풍의 표현과 그 특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향숙, 「고구려 고분벽화 내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미경, 「우리나라 연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정정화, 「조선시대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조미영,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형태 재현에 의한 현대 업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최영희, 「감로탱화에 표현된 교화적 성격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홍경옥, 「우리나라 여성의 전통머리 모양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학술지

유교성, 「여말선초 불교와 여성」, 『조선전기논문 선집』, 제4호, 한국인문과학원, 1998, pp.111-142.

유마리, 「여말선초 관경16변상도」, 『미술사학 연구』, 제208호, 한국미술사학회, 1995, pp.5-37.

이동주, 「여말선초 불화의 특성」, 『계간미술』, 제16호(겨울호), 1980, pp.173-186.

이선재, 고미연, 「조선시대 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제12권,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1997, pp.95-119.

2. 국외문헌

上海人民出版社, 『中國美術全集』, 上海 : 上海人民出版社, 1996.

劉奉文, 『中國歷代仕女畫』, 北京 : 五洲傳播出版, 2009.

3. 인터넷 자료

<http://www.nungin.net/Buddhism/introduction/culture/picture/Picture1.aspx>

[http://dugok.x-y.net/bbs/board.php?bo_table=02_cultural&wr_id=281.](http://dugok.x-y.net/bbs/board.php?bo_table=02_cultural&wr_id=281)

<http://blog.daum.net/seoljg/13871112>

ABSTRACT

Modern Hair Style Application Through Recreation of Women's Hair Style in Buddhist Paintings

Kim Do Yeon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aintings of Buddhism shortened as, a buddhist painting, is a painting mainly depicting faith of ancestor worship or the faith of soul worship. We cannot know exactly when buddhist paintings occurred because there are no documents or records. But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created around the same time as the establishment of buddhism like buddhist sculpture. Unfortunately there is no remaining data of the initial work, but the fact that buddhist paintings have been drawn in buddhist temples can be found through classic literatures.

The study of women's hair styles of buddhist paintings is important to learn and succeeds a classic traditional culture, and in addition, it is used as the main material to the application of modern hair styles. The women's hair styles is usually drawn in Gamrotaeng (a kind of Buddhist paintings) among many buddhist paintings. The reason of this study emphasis on Gamrotaeng is that the women's hair styles which reflect the

custom of the period are relatively well shown in the bottom and middle part of Gamrotaeng, so it would be worth to study classic hair styles around Gamrotaeng in this sense.

About 40 paintings of Gamrotaeng which are possible to grasp and understand have come down to us until the twentieth century including 2 paintings that were made befor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period with the greatest number of production of these is the 18th century. The comprehensive data into Gamrotaeng is the art book "Gamrotaeng" by Gang Woo Bang and Kim Seung Hui. We can search the transition according to the periods and simple charms of the indigenous buddhist art through the one art book, that collected nine total Gamrotaengs including Seikyogi's which is painted in the 16th century and Heuncheonsa's Gamrotaeng which has been restored of the 20th century in the enlarged edition in 2010. In this respect, this study considered it as a main reference, and also the preceding research used it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application of modern hair style and the selection of the hair style to reproduce, this study considered following three things. Firstly, looking for the theoretical aspects about buddhist paintings of our country and a true appreciation of buddhist paintings based on the literature foundations are necessary. Next thing is to select a reproduction work by analyzing the women's hair style in buddhist paintings. The final thing is to determine how reproduce the work. The major selection criteria was a hair style, and five total paintings were selected. The hair style model of "Ssangugye" was Myungboocheung's hair style in "Gwangyeong Seobun Byeonsangdo" from late Koryo, and the hair style model of "Gogye" was the "Painting of the Paradise of Amitābha"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Painting of the Paradise of Amitābha" was selected in that it is a painting of queen consort but it

shows universal form of hair styles with a style of women at court including the royal concubines. For the hair style model of "Ssangye", the professional woman (artiste) in Yaksunsa's Gamrotaeng which is the oldest and the clearest form of Ssangye hair style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as selected. Also the professional woman (strolling actor)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as selected for the hair style model of "Jjokmeori", and the single woman's hair style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as selected for the hair style model of "Braided Hair".

This study selected the works for reproduction based on the study of women's hair styles in buddhist paintings, particularly in Gamrotaeng, and looked for the method to apply them in modern hair style through illustration work and reproduction. The completed reproduction work, modern hair style application work and illustration work and their photographed front, back, left and right side were presented with the description for references.

【 Keywords 】 Buddhist painting, Gamrotaeng, Ssangugye, Gogye, Ssangye, Jjokmeori